朝鮮日報
夕刊 七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鉱石分析 鉱業手續 重石鉛買入
京城府明治町一七三 (授恩町バス停留場前)
東信鑛業社 電(本)2593番

梁山(四川省)飛行場急襲
敵機廿三機擊破
海荒鷲群의空中戰果

【上海六日發同盟】艦隊報道部六日午後五時發表

一、揚子江溯江部隊는 五日前日에繼續하야 上流로進擊 多數의 機雷를處分하며 水口를 啓開하여 密滯으로부터 十二哩上流桑家市까지 進出하엿다

二、海軍航空隊는 大部隊로써 宜豐(江西省) 沙洋鎭(湖北省)方面에集結한 敵大部隊를 發見하고 이를 攻擊混亂시키여 多大한戰果를 거두엇다 又一部有力部隊는 멀리 敵 敗殘空軍의 重要基地로서 敵이 가장 그防衛에 努力하고잇는 梁山飛行場(四川省)을 急襲하야 場內格納中의 大型機三機、小型機二機를 爆破하고 我에 挑戰해온 敵戰鬪機二十機와 猛烈한 空中戰鬪를 演하야 如左한 絶大한 戰果를 거두엇다

▲擊墜一五 ▲不時着을시킨것三 이戰鬪에서는 最近에 드물게보는 大接戰을 演하야 我軍에도 相當한 被害가잇섯스나 前記와가티 잘 여를 擊破하고 悠悠基地에 歸還하엿다

廣東奪回를企圖
蔣、前線에出動指揮

【香港七日發同盟】當地英字紙데일리‧엑스플레스의 報道하는바에依하면 蔣介石은 廣東奪回를豪語하고 前線各部隊直接指揮에當하기위하야 前線某地에 到着하엿다고傳한다 그리고 北上中인 廣西軍各部隊도 廣東奪回戰에參戰하기위하야 方今繼續異動中인데 一部는 廣東省北部高地에 集結하야 廣東奪回의 機를 엿보고잇고 他一部는 興寧에集結하야 博羅、增城攻擊態勢를 整備하고잇다고한다

蔣介石擁護案 國民參議會서通過

【香港六日發同盟】五日의 國民參議會本會議는 지난一日國民參政會本會議에 共産黨幹部陳紹禹가提案한 蔣介石과 國民政府를擁護 民族團結을 强化하야 持久抗戰의 徹底를期함으로써 最後의 勝利를 獲得할것을上程 討議한結果同案中의 二項目을削除하고 이를 可決通過식혓다 同案의 內容은發表되지아니하엿스나 大公報의 重慶電報에依하면 右案은抗戰力增强을 目的으로하야 各黨派의 大同團結을 主張하는同時에 軍事及行政에關하야 原則的解決을要求한것이라고한다 이外同會議에서는 諸君勵、梁漱溟、黃炎培等國民黨以外의 右黨鬪士의提案이 審議되엿는데 그들은서로 政府는 實을避하고 各種抗戰方策의 實施를檢討할것이라고要求하엿다한다

武昌方面敗軍을
長沙衡陽에集結

【武昌六日發同盟】武寧、咸寧、嘉魚를 第一線으로하고 修水、崇陽、蒲圻를 第二線으로하는湖北省南部의 敵長沙防衛陣은 이미 嘉魚、蒲圻、崇陽이 我手中에歸하고武寧、修水도 孤立狀態에 빠지게되여 그陷落은 時間問題로엿다 敵은 아직根氣잇게 崇陽西南四十키로의 通城及 羊樓司方面에 多數兵力을集中하야 頑强히 抵抗을試하려고하고잇다 右는 長沙防衛의目的인同時에 武昌方面으로부터 敗退한百軍을 長沙方面及 衡陽이收容할려는 意圖이라고보인다

伊太利大使館서 防共協定祝賀會

【東京電話同盟】伊太利의 防共協定參加一周年을 마지하야 六日午後八時二十分芝三田伊太利大使館에서는 秩父宮同妃兩殿下의 台臨을 奉仰하고 盛大한祝賀會를開催하엿다 松平宮相、板垣陸相、米內海相、有田外相、各國大公使約五十名出席 兩殿下께서는 午後八時三十五分 아우리지伊太利大使의 御先導로 階下會場에 御臨席 曉餐을함께하시여 兩國國交의 將來를祝하신後 歸還하섯는데 同十時지나 和氣藹藹裡에 會를마치다

蔣의欺瞞的豪語
臨時政府情報處長談

【北京六日發同盟】武漢、廣東陷落後蔣介石은 滿身創痍를 입고 僻陬地에 潛走하야『國民에 告하는書』를 發表하야 國民을 欺瞞하려고하고잇는데 이에對하야 臨時政府行政委員會에서는昨五日情報處長談을 發表하야 痛烈히이것을 暴露하엿다

武漢陷落에依하야 蔣介石은 東洋의 마드리드 라고 豪語하던保壘를 擊破當하고 擔惶히奧地에 遁走함은 天下가周知하는바이다 蔣介石이 이에 全責任을 지고 自伏하야 同胞에게 謝罪한다면 彼는아직英雄의 氣慨를가젓다고 할것으로 卽時下野하야 戰果를收拾하고 他人材로하야금 그後任에 當하게한다면 아직時勢를 賢察하는人傑이라고할수잇다 그런데 蔣介石은 重慶에 逃避한後도 抗戰聲明을 發表하야 依然抗戰持續을 國民에게 豪語하야 가지詭辯으로써 事實을 隱蔽하고 國民을 欺瞞하야 敗戰責任을 回避하려하고잇다 吾人은 그欺瞞을 暴露하지안으면 안된다

一、蔣介石은 武漢이 長期抗戰上、이제는 重要地點이아니고 西南各省을 抗戰策源地라고말하고잇스나 武漢은 全國의中心地로 北伐以來 經濟上、軍事上、政治上 重要地點으로서『保衛大武漢』이라고 豪語해왓다 蔣自身이일즉『漢口에잇스면我黨이 存하고 漢口를일흐면 我黨은 亡한다』 最後一滴의 피를部하기까지 이時艱을克服하겟다 國民이여 戰線에나오라 戰場에가서 大武漢保衛에當하라』고 絶叫하고잇섯다 그런데 其後얼마 되지안허서 武漢은 軍事上 그다지 重要地가아니라고하는것은 國民을 欺瞞하는것이다

一、蔣介石은 今後 到處에서戰果를 擴大하겟다고하나 昨年七‧七事件以來 一個所라도 攻略을바다 陷落되지아니한 例가잇는가 이제 游擊隊를組織한다함은 國民을攪亂하고 民族英雄의이름에 憑藉하야 匪賊을 만든다는것이다

一、蔣은 一時의進退戰果는絶對로 抗戰意識을 動搖시킬수업고 如何한 都城의 喪失도抗戰戰局에 影響이업스며 最後勝利는 我方에잇다고 豪語하고잇스나 戰爭의目的은 元來土地를保守하는것이 그目的이다 身體에 無關係 得失無償의理論等은 일즉 聽聞치못하엿다 最後勝利에達함에는 반드시 그에相應하는 價値가잇는법인데 連戰連敗의 狀態로서는 最後에는 반드시 壞滅될뿐이아닌가 蔣은 일즉 黨軍을召集하고 諸將을 集하야 大勝이란것은 時間으로써 空間을 補充하는것이다라고 하엿는데 이제야『小勝』도하나 엇지못하엿스니 大勝은 더욱不可能한 狀態로서 蔣의最後勝利는 이口頭禪에依하야 蔣個人의 面目을 保持하려고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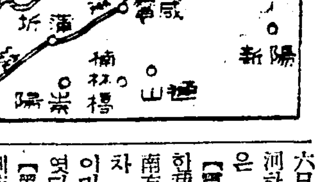
要컨대 蔣政權은 이미 落日의 運命에 逢着하엿고 新中國和平의 曙光은 나타낫스니 國民은 모름지기 事實을直視하야 欺瞞當하지 말지며 力을集하야 蔣政權抗戰理論을打破하는同時에 新中國建設에邁進하는 一方 友軍의正義에 感謝를바칠은 刻下의急務이다

國民精神作興週間
實施奉告祭執行
京城府主催로朝鮮神宮서

事變第四段階를 마지하야 國民精神作興에 關한 詔書渙發十五周年記念日인 十日을 中心으로 今七日부터 始作되는國民精神作興週間第一日은 皇軍感謝日로서 京城府에서는 國民精神總動員京城聯盟、京城軍事後援聯盟、京城教化團體聯合會共同主催로午前九時三十分 朝鮮神宮、同十時三十分京城神社에서 各聯盟關係者三千餘名參列下에 週間實施奉告祭를嚴肅盛大히執行하엿다

이날府內各學校代表、町會、各種團體는 神宮、神社에參拜、戰歿將兵의冥福과 皇軍의武運長久를祈願하고 近隣地防衛部隊를慰問하엿다 軍事後援聯盟에서는府內各映畫常設館에서 出征軍人遺家族慰安會를하는外에 傷病將士를慰問하야 皇軍感謝의誠意를表하엿다 (寫眞은 朝鮮神宮서奉告祭)

雋水敵前渡河
崇陽縣城占領



【南京六日發同盟】中支軍午後五時五十五分發表＝通山、崇陽公路地區를 追擊中이던 我部隊는六日午後一時三十分崇陽을 占領하엿다

【白霓橋六日發同盟】航空隊調査에依하면 崇陽攻擊中의 我軍은 六日午後一時半、雋水를 敵前渡河하야 崇陽城을 占據하엿다 敵은 西南方에向하야 潰走中이다

【寬白橋六日發同盟】崇陽을占領한我軍은 追擊을늣추지안코 西南方으로向하야 潰走하는敵을쫏차 六日夕刻我長谷川部隊先頭는 이미崇陽西南方二里地點에 達하엿다

【黑石渡六日發同盟】飛行機偵察에依하면 長谷川部隊는 六日午前九時三十分 崇陽東方七키로의 要衝、白霓橋에 突入하야 이를 占領한後곳 崇陽縣城에 向하야 急進그先鋒은 崇陽城外를 흐르는 雋水對岸에達하엿다 敵은雋水右岸에兵力을 集結하야 最後의抵抗을꾀하려고 하고잇는데崇陽縣城은 退却準備로 敵이放火하야 猛焰에싸혀잇다

崇陽占領詳報

【白霓橋鎭六日發同盟】敵의據點崇陽一番着은 岸野部隊에依하야 成功되엿다 長谷川部隊는 지난二日以來崇陽東北方山地를 突破하고 不眠不休山과山을 征服하고 突然崇陽東方三十里의 白霓橋鎭을急襲한때문에 敵의約三個師는 떼를지어 潰走하엿다 이에힘을어더 同部隊는 六日午正崇陽東을흐르는 雋水河岸에進出하엿다 崇陽은敵의焦土戰術에 依하야 全市街가猛烈히타오르고 廢墟化되고 敵은 雋水에 架設한幅百二十米의 崇陽橋를爆却하고最後의防衛를 꾀하고저河岸에 쳐둔機銃의 銃口를 늘러노코 銃彈의비를 퍼부엇스나 我勇士는岸野部隊를先頭로 河中으로 뛰어들어 가슴까지達하는水中을 十字砲火를 무릅쓰고 猛烈한敵前渡河를開始하야 드듸여 對岸에達하엿다 我部隊는 저전채로 곳崇陽城東門으로부터 殺到、我荒鷲爆擊에依하야 崩壞된個所로부터 喊聲을올리며 突入하엿다 때는午後一時三十分、江南戰線의 兵站基地이던 崇陽은 이에完全히占領되엿다

武漢攻略戰果
捕虜만五千四百餘名

【南京六日發同盟】中支軍午後五時十分發表＝今番武漢攻略戰에서 我軍이거둔戰果中 이미調査된內容은 如左하다

一、敵의 遺棄死體 一四二三六

一、捕虜 五四七〇

一、重要鹵獲品 重砲 一〇〇門 山、野、砲 三二一門 同彈藥 一萬五千七十發 對戰車砲 九六門 高射砲 一四門 迫擊砲 二八二門 步兵砲 一二門 重機關銃 三六七挺 輕機關銃 一二三〇挺 小銃 二萬一千挺 同彈藥 八二九萬五千八百發

漢口上流의天險
簰州水路制壓도在邇

【軍艦〇〇에서六日發同盟】武漢攻略의 歷史的作業達成으로 意氣昂하야 다시漢口上流의 水路啓開에 任하고잇는 帝國海軍溯江部隊는 六日朝를期하야 進擊行動을 開始하엿다 減水가 甚한揚子江上을 一路〇〇에 向하야 進擊 兩岸에 蠢動하는敵은我軍의 威容을두려워하야 何等抵抗하지못하므로 午後六時까지에단숨에 十浬의狹水路를 突破하고 漢口上流二十六浬窑灣附近에 進出하엿다 漢口上流第一의 難水路乙型의 急개一보가잇는 簰州水路의 制壓도 時間問題로되엿다 秋天一碧에 燦然히빗나는 軍艦旗下에 全艦艇의 士氣는 벌써 岳州、宜昌、重慶을압친感이잇다

羊樓司附近 省境敵陣에肉薄

【〇〇六日發同盟】江南戰線通山敵陣地를 粉碎하고 江南要衝、崇陽을向하야 猛進을繼續中이던 我軍은 六日午後一時三分 崇陽을占領하고 更히 戰果를擴大中이다 도同日早曉 蒲圻附近 雋水河畔의 敵陣地를 突破한 我部隊는 敵을 퇴하야 快進二十六키로 五日에는 湖北湖南兩省境에걸친 山脈을突破하기十二키로의 楓樹嶺附近에 進出하야 羊樓司附近省境의 敵陣突破態勢를 整備하고잇다

崇陽陷落으로 長沙防備一角崩壞

【白霓橋六日發同盟】六日朝崇陽의 前衛陣地인 白霓橋를 奪取한長谷川部隊는 意氣衝天之勢로 西方에 向하야 怒濤와가티 殺到城外를 흐르는 雋水에依하야 最後의 抵抗을 꾀하려하는 敵에對하야 猛擊을 加하야 岸野部隊는 壯烈한敵前渡河를 決行 六日午後一時半 猛焰燒煙中인 崇陽城에 突入城壁노괴 日章旗를揭揚하엿다 이리하야 咸寧及通山方面으로 부려 長沙를連繫하는 幹線道路上의要衝은 모두我手中에 歸하야 드듸어 支那軍의 長沙防衛 一角은 崩潰하엿다

本社參觀
(十一月七日)

▲全北五山學校兒童七七名(安永芳行氏引率)

▲仁川支局後援京城視察團員九名(柳順甲氏引率)

▲仁川高等小學校生徒 五八人(孫明熙氏引率)

▲長安公立尋常小學校生徒 六二人(金周昊氏引率)

時事解說
委任統治領

帝國에서는昭和十年三月二十七日 國際聯盟을 脫退하엿스나 그後에도 聯盟의 文化機關에는 協力하고잇섯다 그런데 지난 九月 聯盟理事會에서 支那事變으로 日本制裁規約第十六條를 採擇한데 對하야 帝國에서는今後 聯盟의 諸機關과 完全히 協力을 斷切키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지난 二日 聯盟事務局長에게 이를 通告한바 聯盟에서는 今後 日本의 南洋統治를 어떠케 하겟느냐 하는것을 問題삼을 모양이라고傳한다

◇ 所謂 南洋群島라고 하는것은 赤道以北 比律賓東便 太平洋上에 散在한 一千有餘의 島嶼를 말하는것인데 그大部分이 일즉은 獨逸에 屬하여잇섯다 그런데 大正三年 世界大戰이 勃發하자 帝國海軍이 이것을 占領하엿다가 講和條約의 結果 聯盟의 委任統治領으로 決定되엿다 面積은 二一三六平方粁 人口는 近八萬名인데 그中에는 內地人이 約三萬名 朝鮮人도 五百名假量 살고잇다 帝國에서 委任統治를 맛터가지고 南洋群島防備도로써 그統治를 하여오다가 大正十一年에 南洋廳을 設置하엿다

◇ 그런데 이委任統治問題에對하여는 滿洲事變以來 여러가지 國際問題를 惹起하엿스며 또 今番帝國의 聯盟과의 一切關係斷切로말미암아 또 다시 問題될것이나 委任統治領에서 帝國住民이 人口의 三分一以上을 占領하고잇스며 또 主要機能을 모다차지하고잇다고하는點은 이問題解決에 看過치못할 重大要素가 될것이다

大毎特派員
海防에서下船命令

【하노이六日發同盟】昨五日出帆에際하야 下船命令을맛고 海防警察에서 取調를바든 大毎特派員 橫田高明氏外一名의 邦人은同日午後六時 一日釋放되여 石川호텔에서 潛在中이다 取調原因은不明이나 書類等이 押收當하엿스므로 或種不快한 嫌疑에依한것으로보이며 書類檢閱이 終了하기까지 東京州外의 旅行을 禁止當하고잇다

德王一行
十六日에來京

方今內地各方面을 視察中인蒙疆自治政府首席德王、同副首席李守信、同最高委員于品卿、同夏恭四氏以下 同政府首腦者一行은同政府顧問 金川中佐案內로 來十三日 朝鮮에올 豫定이던바 日程을變更하야 來十六日 午後一時三十五分 京城驛着 二泊後 十八日午後四時二十五分發 歸國할터로 總督府에서는 一行歡迎에 諸準備를急히하고잇다

石華山을占領코
楓樹嶺敵을脅威

【崇陽七日發同盟】崇陽을一擧에奪取한 長谷川部隊는 (숨쉴새도업시) 西進을繼續하야 六日、日沒頃 崇陽西方八키로의 石華山을占領 東西方으로 急進하야 粵漢線楓樹嶺附近의敵을 脅威하고잇다

【崇陽七日發同盟】宮崎、藤田兩部隊는 昨六日午後七時 崇陽南方五키로의 華山劉家를占領 更히陸水에沿하야 南北으로戰果를擴大中이다

京山을空襲

【〇〇基地七日發同盟】我陸의荒鷲田中部隊野澤、大平、富田各中尉가 指揮하는〇〇機는 七日午前九時五十分 漢口西方約百五十키로의 京山을急襲 猛烈한對空砲火를 무릅쓰고 巨彈을퍼부어 城內에잇는 敵司令部에 多大한損害를與하고 悠悠歸還하엿다 京山에는 武漢防衛戰에 脆弱하게도 敗退한 張自忠 馮治安軍이蠢動하고잇섯다

公正한軍縮要求엔
應對할意思잇다
나치스黨쥬링겐地方年次大會서 히總統演說

【와이말(中部獨逸)六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六日中部獨逸古都와이말에서 開催된 나치스黨주링겐地方支部年次大會에 臨席하야 黨員大衆아페서 獅子吼를試하엿는데 劈頭 總統은 獨逸의 平和的意圖를 明白히한後 처칠그린우드兩議員의 英國反英벌린派領袖를 痛烈히攻擊 最後에獨逸은 公正한條件만 確立되면언제라도 軍備縮少에 應할意思가잇는旨를 述하여 注目을끌엇다 히틀러總統의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外國方面에서는 獨逸은 約束을破棄하엿다고 痛罵攻擊하고잇스나 원은米國大統領이그十四個條條件을드러 獨逸國民을 欺瞞한것이야말로 歷史以來 最大의 約束破棄가 아닌가 獨逸의 再軍備는 余의 平和愛好의眞意에서 獨逸國民에 對하야 軍隊와 武器를주고 또諸外國에 對하야 우리의 平和的意圖를 充分히 徹底시키기爲하야 行한것이다 世間에서는 가시를가지고잇는 單純한理由에서 고신도치를 싫어하는者가잇스나 고신도치라도 타른動物에서 危害를 바들때自衛上 不得已 針으로써 敵을 찌를뿐이다 고신도치가 무섭거든接近하지아니하면 조흘일이다 獨逸도이와가티 自身의國事를 勉勵하야 國內再建에邁進하기에 對하야는 他國이 무엇이라 干涉할은 滋味업는일이다 처칠、그린우드가튼者는 反英黨勢를 盛히 吐하야 獨逸攻擊에 날뛰고잇스나 獨逸은公正한 軍備縮少要求에 對하야는 언제라도 此에 應할意思가잇는것을 玆에宣言한다

히總統演說은 軍事外交方針을示唆

【伯林六日同盟】히總統이六日와이말에서行한演說은 먼저 뭔헨에서行한 演說에繼續하야 뭔헨協定成立을 轉機로하야 歐洲政局의 新段階에處할 獨逸政府의軍事外交方針을 示唆한 것으로 多大한注目을끌고잇는데 伯林消息通은 總統의 演說으로 獨逸은 軍備强化에 邁進할 決意를 分明히 한것이라하야 如左한一致한觀測을하고잇다

一、獨政府는 英佛兩國이 盛히 軍備縮少의소리를 노피고잇음은 公正한 軍備를미처못한 英佛兩國이 獨逸軍備를 低下식히려는魂膽으로보는것으로본다 따라獨逸은 今後英佛兩國의 軍備에對抗하야 獨國防軍의 强化에邁進할것이다

一、英國內에 有力한 反獨說이存在하는限 獨逸은 四國協定成立의 前提條件은 全然업다고 觀測하고 어에反對態度를取할것이다

反共救國全國會議 十二月中旬開催

【北京六日發同盟】中華民國政府聯合委員會第二次會議에서 決議된 反共救國全國代表會議는 來十二月中旬을期하야 南北이서로呼應하야 一齊히開催하기로決定 그具體的指導方針에 對하야는常任委員會에서 準備를 進行하리이고 行政委員會에서는 이와서로前後하야 聯合委員會 第三次會議를 北京에서開催 全國的國民運動과 併行하야 中央政權樹立을目標로 新興中國建設에 邁進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第三次會議에서는 中文의幣制를 中心한 金融 郵便 物資統制 關稅等 共通事務에 對하야 具體的會議를 열豫定이다 漢口陷落後의 新事態發展에 따라 聯合委員會의 活動은 一層强化하리라고 期待된다

辭令

(總督府技手) 慶田榮憲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補咸鏡南道産業技師
(全羅南道技手) 荻野茂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補全羅南道産業技師
(平北)朝鮮産業技師 飛田源次郎
依願免本職

八面鋒

敦化門 압길에서 京電뻐스 轉覆하야 二名卽死 九名重輕傷。

○原因은 車아플 橫斷하라는 行人을 避하고저 急角度로 카부를 돌다가 失手한것이라고。

○眞相은 司直의 손으로 取調中이니 下回를 기다리려니와。

○아침 랏슈아워에 乘客을 滿載하고 超스피드로 닷는건 생각할 問題。

○況 꼬‧스텁이 업는 十字路 丁字路等에선 一層 注意할 問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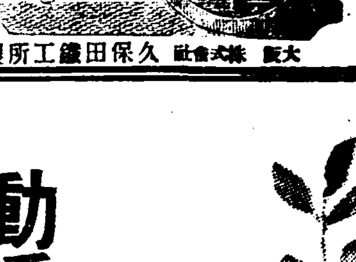
○그런데 經驗적은 運轉手君은 사람이 만히 타면 신이나서 스피드를 내는것이 往往。

○京電當局과 監督當局이 徹底히 團束할 所以。

○그뿐아니라 交通事故로는 機械의 故障、從業員의 過勞、行人의 不注意等으로 생기는 일도 許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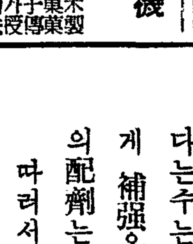
○이곳 交通道德이 向上되어야할 點。

輕油、石油發動機
用名〈クボタ〉類似品あり 特に〇久に御注意乞ふ
一馬力半ヨリ 一〇馬力マデ



クボタ
アクロ式ディーゼル機關
(カタログ送呈)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長本局 四八八二 四七八四
大馬力一百馬力
大阪 株式會社 久保田鐵工所製

돈벌기大王
리-드式穀物膨脹機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가되는 米菓製法傳授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北區浮田町九番地 兒島製作所 (電話北3238番)

朝報案內

社員 中等程度二十五才以上ノ方數名採用 希望者ハ履歷書寫眞添付ノ上 至急御通知アレ 京城漢江通十六番地ノ八 龍山一六七四番 和田

佐伯家具店 弊店은今般本町二丁目派出所前으로新築移轉하엿사오니倍舊의愛護를切望하나이다 電本二三七四

男女幹部職員採用 年齡二十五歲以上中等學校卒業程度의心身剛健한者若干名幹部職員으로採用 但忠南北、慶南北在住希望者는履歷書送附面會日通知 京城府黃金町四ノ一七三 富國徵兵保險相互會社 朝鮮監督所

醫員招聘 臨床二個年以上ノ經驗アル內鮮人ニシテ專門學校以上ヲ卒業シ二十七歲ヨリ卅七八歲ノ方 希望者ハ履歷書ヲ送附アレ 面會日通知ス 京城黃金町二丁目 明治生命京城支店

外務社員採用 行蓄運動の波に乘り益々多忙を極む 二十五歲以上(男女)經驗の有無を問はず 希望者は履歷書送れ面會日通知す (無經驗者には指導材料進呈す) 京城府黃金町一丁目 明治生命京城支店

医学原理에合致된
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네오톤

動悸나숨이차고
盜汗이나微熱은
心臟과胸의그믐이간것
치위가오기前에
호르몬의治療

心臟이나肺、肋膜、胃等 身體를爲하야 活動하고잇는內臟은假令 病으로 故障이생겨도 이것을一時쉬게하고 治療를한다는수는업스므로 亦是그弱해진 內臟에다 힘껏 活動할수잇게 補强을하면서 그病을治療하지안호면 안되므로 內臟藥의配劑는 퍽어렵습니다。따러서 이藥에는 病으로금이간 器管에도 充分한活動을시키며 同時에 그금이간것을 速히治療시킨다는 復雜한作用을 具備한것이아니면 아니됩니다。이點으로 옛날부터天然의貴藥으로서 珍重、賞用되는 特種호르몬動物의精膽、麝香、熊膽、烏犀、牛黃、眞珠其他數種을 綜合精製한『救心』은 複雜한 藥作用을 充分히具備하여잇스며 그리고內臟에로 吸收同化가빠르고 爲先血行을 旺盛히하며 病으로衰弱한部分을 補强하고 各內臟을 活潑하게하는 內臟호르몬을 增强하므로 病은內外로 攻擊을當하게되며 恢復이빠르고 芯核으로부터 튼튼한 身體가되므로 內臟에故障이잇는분에게 最適한것입니다。目下實驗하기爲하야 이『救心』을二日分無代進呈中이오니 早速申込하시여서 한번體驗해보시기를 勸하는바입니다。

心臟도胸도、튼튼히되여
裁縫이나 집일도 수월히 되여기뿌다

長野縣上伊那郡中澤村 下平淑子

저는 昨秋부터 파세도-氏病이 생겨 心臟과胸을 傷하야 脈은 어지러워지고 肋膜炎까지 생겻스나 『救心』을服用한後로는 動悸、숨찬것도업서지고 身體는 튼튼하게되여 家事를 수월하게 돌보게 되엿습니다

(『救心』藥價는一週分二圓 二週分三圓五拾錢、三週分五圓。藥店에파-는데에有함。品切이때는直接本舖로振替東京七二六番)

特種動物精膽藥『救心』實驗試藥一日分
無代進呈
目下『救心』二日分과『心臟의手當と食餌』를一人一回에限하야 葉書로申込하시는분께無代進呈합니다

救心의効力잇는症狀
◇心臟病으로苦痛하는분
◇肋膜과肺가나쁜분
◇胃가弱하야食慾업는분
◇心臟이弱해서動悸와숨찬분
◇肺가弱하고熱과기침나는분
◇盜汗으로밤에苦痛하는분
◇神經痛으로手足알는분
◇心臟脚氣로苦生하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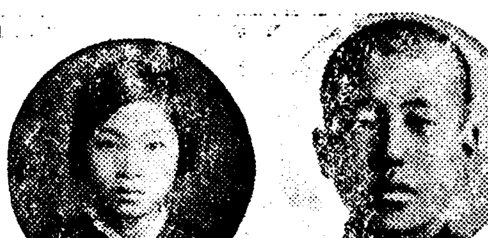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三丁目二十七
申込은 救心本舖
電話京橋(56)三〇一一番 九〇四四番

피로물드린『朝勤時間』!

急카-브中의京電빼스 顚覆、乘客十名死傷

今朝敦化門前大路上의交通慘變

被害者中、學生이四名



경전빼스가 전복되여서『러쉬아워』를 피로물드린 참사가 일어낫다

칠일아침 여덟시오십분경 대화정(大和町)을떠나서 총독부아플향하야 진행하던 경전빼스삼천백삼십삼호차가 출근하는 통근자와 통교하는학생들을 사십여명을만재하고 돈화문압 와룡정(臥龍町)파출소부근의 커-브를 돌다가 전복되엿다 부근동민과 경관대가협력 즉시 차를이르켜세우고 구조작업을 개시하엿는데 휘문중학(徽文)일년 이조생 홍은덕(洪恩德)(一三)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차장 김수정(金壽貞)(一七)경기(京畿)고녀 이년생 강신재(康信哉)(一五)등세사람은 빈사의 중상을당하고 남어지 육칠명의 경상자를 내여서 즉시 대학병원 송정(松井)외과에 수용, 가료중인데 부상자는 다음과갓다

即死 ▲昌信町一三八ノ九 徽文中學校 一年二組 洪恩德(一三)

重傷 ▲新設町一七五 京畿高女校 二年三組 康信哉(一五)▲元町三丁目四三三 빼쓰女車掌 金壽貞(一七)

輕傷七名 ▲新堂町一四六 李炳晟의딸 校洞小學校二年(女) 李英淑(九)▲蓬萊町四丁目一九七의六九 빼쓰運轉手 李誠文(二一)▲元町三丁目一九七 普成小學校五年生 吳順太(一三)▲總督府農林局林政課 李松蘭孝(二一)▲總督府殖[illegible]

(사진은 빼쓰 전복현장 X표와 직사한 홍은덕소년과 중상한 차장 김수정, 강신재)

洪少年當日로火葬

빼쓰사고에 대하야 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보안, 사법양주임이현장에 급행사건의 진상과원인을 규명하기위하야 운전수를취조하는한편 중상당해서 입원중인 차장의의식회복을 기다려서 임상취조를 하게되엿다 그리고직사자의 시체는경전(京電)에인도 즉시적십자(赤十字)병원에옮겨다가 수습한뒤에 근친자외회문중학직원학우들의 참례하에오후세시 홍제원(弘濟院)화장장에서화장하엿다 더욱 반우(班友)를 일허비린 휘문중학일년이조에서는 조의를표하기위하야 휴업하고 장사에참여하엿다

無理한配車關係로 失速이慘禍의原因

京電當局의責任重大

직사자와 중경상자를 다수히낸 돈화문전의 빼스 전복사건의원인에 대하야는 경찰당국이조사에 착수하얏스나 전후의사정과경전종업원 방면휴게소에서종업하는 운전수들의 이야기를들어보면 속력(速力)을 너무내는데 원인이잇는것이 판명되엿다 까소린제한이 된뒤에는대회전과총독부선에 운행하고잇든차대의 반수이상이 줄엇스므로날마다 증가하고잇는 승객을소화하기위하야 정원이외의 승차는팔할선도업고 시간을 단축제한하얏스므로 속력을 그전의배로내지안흐면 소정의 시간내에왕복을 할수업게 되므로 하는수업시 위험을무릅쓰고라도 속력을내게 하여서 그와가튼 참사를 일으키게한것이다

被害者들의 被害程度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를 보면

▲홍은덕(휘문중학생도)군은 빼쓰차장파가치 승강대에서섯다가 빼쓰가 전복되는바람에 빼쓰에 깔리우면서 깨여진 유리조각이목에 기피바키여 구멍이뚜러저며 바른편쪽경동맥(頸動脈)이끈어저 피를만히쏟고 현장에서 곳절명되고마럿다

▲김수정(빼쓰녀차장)은 외인편팔의 뼈가꺽거지고 허리에 타박상을당하고 외인편 눈두덩이가로째여젓고(裂傷)

▲강신재(경기고녀생도)는바른편다리뼈가 꺽거지고 외인다리에 두곳이째여젓고 전신타박상을입어 가장중상을당하야 대단히 주태에잇다

▲오순태(보성소학아동)은 가슴에타박상을 입엇스나경미하다하며

▲리영숙(교동소학아동)은외인편뒷머리에 열상을입엇스나 경미하고

▲리성문(운전수)머리에 타박상을입어 일시는 중상인뜻햇스나 경미한정도이고

▲천향은 머리에 렬상을입어 경상이고

▲이세청서장은 머리에 경상을입엇고

▲원우대랑도 머리에경상을입엇고

▲본중청호는 외이편귀가 째젓다

責任痛感 京電當局者談

사고는 미안하기짝업는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처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바가업스므로 말할수업습니다 책임만은 절실히느끼고잇습니다 원인이 속력 과다에 잇다는 것은 조사해보지안흐면 모르겟스나그러하더라도 아직 거기대하야는 판명안되엿습니다

鮮血이淋漓한現場

城大病院으로 重輕傷者收容

사고를내인 현장에는 때마침『랏슈아워』이라 거리에는 통행인이만흔때에 이와가튼 대사고를이르키어 일층혼잡을이루엇는데 현장에달려가니 땅에는피가허벌깔리고 깨여진유리조각에 부디처서 경동맥이절단되어 무참히직사한 홍은덕군의시체가 학생모와 가방, 벤또등의 소지품과함께 피로물드린땅우에 흐터저잇는데 때마침 참보를듯고달려온 직사자의 부친인 총독부사회교육과촉탁 홍석모(洪錫謨)씨와 휘문중학 이병규(李炳圭)교장이며 경기고등녀학교선생, 학우들이 울고불며 구호를 하느라고 분주해도타가는동에 모여잇던 군중들은 그처참한 정경에 얼굴을 가리우고 눈물을흘치못하야 한참은 눈물의 바다가 되여잇섯다. 이때 이소식을드른 불교중앙교무원(中央教務院)에서는 세명의승려가달려와사고현장의 시체를아매노코 송경을하야 뜻하지안흔 재앙으로생명을잃은 어린영혼을 위로하여고 자리에모여섯던 홍은덕군의 다수한 동급생들이며 군중들은마음으로써 조위의뜻을 표하엿다

(사진은중상자들이루는 성대병원)

꼬박게 기회를타한 피해자들은 사고직후 곳 소방서구급차와 다른빼스로 대학병원 송정외과(松井外科)에 담어다가 응급치료를 하엿다

동외과 낭하에는 수술실로드나드는 운반차(運搬車)와 달려온부모형제 동무들로비통하고 혼란한 광경이엿스며더욱중상을당한 여학생과 여차장의 어머니이씨(李氏)와 김씨(金氏)는 수술실에서 새여나오는딸의신음소리를듯자 낭하에 그대로 기절되여 대소동을 이르켯다

피해자가운데 가장상처가기퍼중구가 염려되는 경기고녀 이년생 강신재양은 히미한눈을돌고통이며 가느다란 괴로운목소리로 사고광경을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차안소참이에 매달려잇누라니까 갑자기 차가이리갓다 저리갓다 뭇어버리더니 쓰러저버렷는데 그다음은 어찌된지 통알수업서요 이제는 상하시간이 지내닷혈지요……

목메어말못하는 洪少年의父親

徽文中學의模範生으로 慘禍十分前父親과作別

현장에서 직사한 홍은덕(洪恩德)소년은 금년봄에 협성(協成)소학을 우등으로졸업하고 휘문중학에드러가서 일학년이조의 반장으로 학우들의 신망은 물론 선생도 천화년에서 특재한 우등생이며 가정에는 부모와 형인 경성중학(京中)사년생 홍섭덕군을 비롯하야 칠형제의 둘째로 아버지 홍석모(洪錫謨)씨는 총독부 사회교육과촉탁으로 십여년동안 근무하엿는데 이날아침에도 종로(鐘路)삼정목에서 아버지는전차로 출근하고 은덕소년은빼스에 타고 학교로 갓던것이 그처럼의 참화를 입자총독부에 출근하자 마자갓치 집을나선 아들의 참변을 전화로듯고 곳달려와서 다름파가티 말한다

은덕이가 죽엇습니다 종로삼정목에서 나는 바로가고 그애는 빼스에 가려단다고 작별의절을 받은지 실분이되라말라한데… 흥인배재(興仁培材)소학교와 경성농업의 제형들에게 전화로라도 좀지해주십시요 제어미가 오지안헛습니까…… 하고 흥분파 슬픔으로서 말이막히엿다

「빼쓰」顚覆은 이번이세번째

소화팔년사월일일 경전이경성부로부터 시내빼스영업을 인계한후 전복사건이 이번까지세번이엇다 한번은 돈암정(敦岩町)길정교(吉哲橋)다리에서도 한번은 [illegible] 처에서 재작년봄 빼스와자동차가 정면충돌하야 그때에는 자전거탄사람이 즉사한일이엇다

超滿員의盛況

本社後援 私立初等聯合學藝會

본사후원 제삼회 경성부내사립초등학교 연합학예회(第三回京城府內私立初等學校聯合學藝會)는 경성부사립초등학교장회(京城府初等學校長會)주최로 금칠일오전열시부터 부민관(府民館) 대강당에서 열엿는데 정각전부터 살도한 학부형, 학교관게자등으로 초만원의 성황을일운가운데 각학교의 창가(唱歌)유희, 소년들의 유희(遊戲)낭독(朗讀)동화(童話)극(童話劇)으로 제일부를마치고 다시오후한시반부러 제이부로 순서가 바뀌자 만장의 관중은 천진스러운 어린이의재롱에 도취하야 다시금동심으로 도라간듯 흥겨웁게 관상하고 동네시경에 폐회하엿는데 초대바다 관람중이던 부상병(負傷兵)(오전에삼십명 오후에오십명)들도어린이들의 재조에도 취하여 하로를유쾌히보내고도라갓다

三井假社屋 淑明高女에寄附

삼정(三井)물산회사경성지점에서는부내황금정입정목에 사무소를신축중이던바 요지음에 낙성되여 칠일에 이사를 하엿는데 그지점에서는 욱정(旭町)에 잇든, 가사무소로쓰던 시가 약삼만원가량되는 건물을숙명(淑明)여학교에 기부하엿다한다 이것을 기부바든 숙명여학교에서는 방금 용산효창원(孝昌園)에가지고 닥고잇는 학교 건축지로 옴겨다가 본교사를지을 때까지 가교사(假校舍)로 사용할 작정이라한다

閔氏家公判又延期

팔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씨가(閔氏家)의 천만원 골동상속을 둘러싼 원피고상방의 연기신청이 잇서 오는십칠일 열리기로되엿다 또한 이들의재이소송으로 선대의 애완품(愛玩品)을 보내라는청구를한 사건은 이십에 열린다

色鉛筆

도시의교통은 날로 부러가고잇는동시에 아침저녁 학교에가는학생, 직장회사등에 가는사람들이 몰리는때엔 더구나 말할수업시 혼잡하야 전차나빼쓰를 어더타는것은 거의「결사적」일이라고 형용할정도이다

▲그런데 서울의빼쓰운전 사정을보면 까소린절약때문에 운전하는차대를 줄이니 그대신 손님은그만큼 더빽빽히날려야할 사정이잇서서 운전수도 하는수업시속력을더내어야하는데 무리가생긴다

▲이번돈화문 압빼쓰 사고도알고보면 이것이 근본적무리요 원인이엇다고

▲세상엔 어려운일, 무리한일은 만흔것을 무리가업도록 하는것을 합리화(合理化)라고하지안는가

各級의代表決定

全朝鮮拳鬪盛況裡終幕

[illegible] 本社後援의 第五回全朝鮮[illegible] 六日午後七時부터 本社大講堂에서 [illegible] 열리어다 [illegible] 大阪에가서 [illegible] 決定하엿는데 오는二十六、七八日에 東京日比谷公會堂에서 [illegible] 外地五級代表가 出場케되여 [illegible] 決定하고 [illegible] 이라한다 (括弧은 各級優勝者)

【플라이級】 審判 金昌燁
金仁奭(東拳) 延長 梁政模(東拳)
▼…[illegible]시키고 金君은 『원투스트레-트』로 梁君을苦戰케하야 勝敗를豫斷키어렵더니 延長戰에드러가 僅少한 포인트의差로 金君이 첫優勝을하엿다

【빤탐級】 審判 金裕昌
金明鎬(朝拳) KO 高大云(無所屬)
▼…左훅크의命中으로 高君이 운되여 第一라운드 一分二十二秒에 [illegible] 金君KO勝

【폐더-級】 審判 金正學
[illegible](東拳) 判定 朴敬善(靑拳)
▼…朴君第一라운드에 「아웃복싱」으로 [illegible] 對抗하니 [illegible] 「인파이트」로 [illegible] 鄭君判定勝

【라이트級】 審判 金[illegible]
[illegible](東拳) 判定 成漢慶(朝拳)
▼…兩君모두「아웃복싱」으로 對峙하야 서로 [illegible] 엿보더니 韓君左右훅크와 右스트레트로 成君을 加擊하니 成君「디펜스」의 不足으로 韓君判定勝

【웰더-級】 審判 成萬慶
李致眞(靑拳)判定 朴順喆(東拳)
▼…차우스포-李君 沈着하게 左훅크로對하니 朴君도 消極的으로 應戰하야 카운터-만을엿보고 積極的戰法에 나아가지안허 判定으로 朴君惜敗

【미들級】 審判 金鍾漢
金永頤(朝拳) 判定 崔泳學(靑拳)

▼…未完成인 技術로나마 亂打戰을 [illegible]하야 兩君모두 [illegible]로 「로우」를 [illegible] 되푸리하다가 金君判定勝

專門卒業送別庭球

明專高學卒業生對 在學生과의 送別庭球戰은 六日午後一時부터 太平通 京城府[illegible]코-트에서擧行되엿는데 第二라운드에드러가 卒業生軍이快勝하엿다

【卒業生】		【在學生】
崔鍾永 洪性經	4…0	朴勝永 安寬道
尹錫九 朴正學	4…3	中井 姜大鎬
李基三 趙東勳	4…2	申東晟 趙勝鉉
李容周 崔[illegible]	3…4	安井 張日剛
辛昌範 松本	4…1	崔[illegible] 張仁煥
趙九鉉 趙[illegible]	4…2	孫在九 [illegible]
【第二라운드】		
崔鍾永 洪性經	4…2	金鍾國 趙晉五
尹錫九 朴正學	4…0	石田 李仁俊
李基三 趙東勳	4…3	金永河 金東烈
辛昌範 松本	4…3	安井 張日剛

實業對學聯卓球 十三日京保서擧行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十四回實業聯盟對學生聯盟卓球對抗戰은 來十三日午前十時부터 渼進町京城女子保育學校講堂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한다

排球戰績

朝新主催의 第十四回全朝鮮排球選手權大會는 六日午後一時부터 龍山鐵道局코-트에서 擧行된바 一般部에는 遞信局, 中等部에는 龍山中學等이 各各優勝하엿다

實業卓球朴君優勝

朝鮮卓球協會主催 第八回全朝鮮實業卓球選手權大會는 六日午前十時半부터 東崇町大學醫學部講堂에서 열린바 團體戰은 總督府A組가 優勝하엿스며 個人戰은 朴在幟(總督府)君이 優勝하엿다

◇個人戰(準決勝)
全成鎭(總督)2…0水 島(總府)
朴在幟(總府)2…1文錫煥(遞信)
李東儇(總府)2…1李順基(專賣)
李在雨(總府)2…0德 富(總府)

【準決勝】
全成鎭(總府)3…0李在雨(總府)
朴在幟(總府)3…0李東儇(總府)

【決勝戰】
朴在幟(總府)▼…棄…全成鎭(總府)

明日이立冬

명일이 이십사절기중의 하나인 입동(立冬)이다 이날은태양의황경(黃經)이 이백이십오도에달한다 옛부터 이때가되면 물이얼기시작하고(水始氷)땅이얼어(地始凍)추위가점점해진다고한다 즉 이때부터겨울이되는셈이다 근일기후를보면 날이갈수록추워지려 몸이되는셈이다 어제밤우박나린후 오늘아침기후를보면 완연히겨울철이도라온것갓다 김장도 어서해야하고 겨울준비하기에바쁠때이다

志願兵一行

今朝參拜旅行에登程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제일회생 이백이명은 근근입영(入營)을압두고 이세신궁(伊勢神宮)참배여행을 하기로되여 칠일오전열시 경성역발 열차로 길을떠낫다 (사진은 경성역에서)

堅志町에火災

칠일 오후하시반에 부내견지정(堅志町)육십팔번지 큰길가에잇는 제등재조(齊藤造酒)매원상점(梅原商店)에서 불이나서 이웃집까지 올마부러서 대륙초자점(大陸硝子店)전동이발관(典洞理髮館)등 삼호가 전소되엿다 소방대의 활동으로 오후두시오분에 겨우불을 잡앗다 그건물주인은바로그집뒤에 잇는윤치호(尹致昊)씨이며 원인과 손해는 조사중이라한다 다행히사람은상하지안햇다 한다 대낮에 큰거리에서 불이낫기때문에 부근일대에서는 한동안 혼잡하엿다

旗 宇田旗店 全山栄町一 電一六七 振替全山二三九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日本海의北西部와 滿洲東部에잇고 後者는 南쪽으로 不連續線을걸처잇다 高氣壓은 支那內陸及오호츠크海本邦東岸의 近海에퍼저잇다 半島의南部及 北東部는 흐리고 其他는개이고잇다 昨夜京畿, 黃海兩道에 雷雨가잇섯다 滿洲는 大槪흐리고잇는데 西部는개이고 西日本及太平洋은흐리고 其他는日氣가좃타

豫報 今夜와明日은 개이겟다 흐리겟다한다

昨日最高 一九度
同 最低 五度
今朝最低 五度七
今日正午 ○○○

早大럭-비勝

【東京電話同盟】復活第二回早大對京大定期럭비-戰은 六日午後一時부터 神宮球場에서 擧行한바 早大依然強味를 보이여 結局二十二對十四로 快捷하엿다

早大33(22 11…8 6)14京大

全滿럭비-連敗

全京城30(9 21…0 8)8全滿鐵

對全京城 OB軍과의 럭비-戰은 六日午後二時半부터 龍山鐵道球場에서 橋本氏主審下에全滿鐵軍키크오프로 開始된바 結局三十對八로 全京城軍이 大勝하엿다 그리하야 全滿軍은 京城에서 二戰二敗의 戰績을남기고退京하엿다

今夜 本報讀者慰安映畫大會 第一日 午後七時開幕 於 本社大講堂

五〇セン均一 早朝割引三〇セン均一 (但時間迄)
東寶映畫特作 横山エンタツ・花菱アチャコ・柳家金語楼主演 サア封切でゴザイマスゾ！ 演出・齋藤寅次郎
後篇 水戸黃門漫遊記 日本晴れの巻
シャム 大野象狩 合同商事映畫部製作
11月8日より 實演 クララ・ウアンド・ライティ
若草劇

大日活でしめて成し得た 日本映畫界の大盛典！
續水戸黃門廻國記 近日公開
日活の 嘩原児 巡禮やくざ 監督・管沼完二 主演・尾上菊太郎
パラマウントの 夜間裁判 ワーナー超特作
フランク・マクトナルド監督 アン・ヴオザーク ジョン・リッテル主演
ウイリアム・ボイド主演 ネイト・ワット監督
朝日・京日・パ社ニュース (午前中封切しまず)
黄金座

맛이뛰엿습니다! 능률만콤 맛이잇게 되엿습니다 5전입니다 菓子店에잇고

現代體力增進法 中央體育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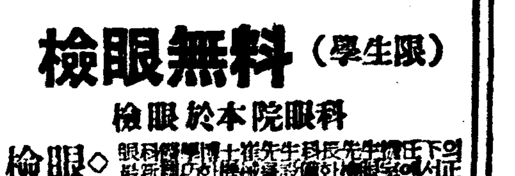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喘息·神經痛 中風·高血壓 血의「混濁」을업새고 原因부터 고치는今津博士의新療法 다니아닌不治

頭痛에 テーリン

藥으로 滋味나 돈모으기 製藥士 養成講義 무슨藥이라도 自由로製造 ◇立身成功의門 (入學案內 無代進呈) 日本通信製藥學校 東京市·芝區新橋·六ノ四八

商標 고초가루 都 金千壽商店製粉部


検眼無料(學生限) 檢眼於本院眼科 ◇検眼◇ ◇眼鏡◇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鄕土文化를차저서 ③

三慈·城·厚·昌·江二

元永冑日記(四)

宋錫夏

十五日 晴發 至下靈項嶺則 府使李春華 到此祈雨人 參議委 伏於前日 遭路險狀 忘備危險 嗟此士輩丁亦未易往來 況京華貴人乎 一行面面相覷(忍毅望) 歸路長久 仍還宿所 將欲回轡 更思之 嶺丁能從足則 猶可作行故 先使行中二人 從險前路 道路之危險果然 然一行皆曰此行 王命也 焉敢還退 姑留一日 使指路軍 或作棧道 或伐木作橋

十六日 平明行東向 過嶺坡 至下嶺項嶺則野 長可十里 廣亦五處里許 由中嶺項十里非路 果有空淨橋 危險難行 跋涉者合目而過 一行皆得 無事涉險 王靈所蟹故當如此 上嶺項、嶺下仇非之間(一) 奇巖怪石 名目甚多(二) 長磯數十丈而特立於鴨江之心 急流奔瀉亦一壯觀也 由中嶺上仇非至上嶺上仇非 有靈項嶺 緣崖攀木 嶺是高 僅得纔上 俯視綠江 水勢洶湧 如覆盆中 不可俯視 陰澗而下 急若倒懸 亦不敢容足 中間十餘里永無 路出絶頂而俯臨流溝 臨而過之 足心生酸 轉至金洞洞口 亦十里開豁 仍行至下下仇非十里 危險咬涉亦無異於嶺項嶺 少憩江邊 仍過甄田上仇非 本府逐牛 待於此 困步之際 喜不可言 騎牛轉向三洞 其間非頑下 石角如削 路或絶或連 到數十步處空處 兩道浮橋 緣緣相附 閃忽徑過 殆若從天而降 牛亦倒躓㵎下 江界之牛 信異他地牛異也 至三洞(三)野開十里 廣亦五里許 宿三洞 設幕精潔可愛

十七日平明發行過一非嶺(四) 乃困洞嶺也 長五里 廣三里 江邊非嶺之險 到處皆然而其間有鑿石(恐謂束石)(五)上下一把又不可行直論困洞… 四五處 自困洞至眞人長谷 山峽樹密 不見天日 至困洞嶺底 … 厚峙入十里 … 之東西南北 四五十里 … 洞仇非 長 十里 … 七里 至竹田防所 長 三里 … 十里有人竹田長谷間流… 江北與五佳山 … 竹田留防所

十八日 平明 所騎牛二頭病 不可行 行中…日某某二人落在 此後 公私俱便 此論一發 勢難强爭 某某…而獨自先發 山中分路之歎尤可知也

十九日 一行中人分向厚州境 自此厚州鎭至八十里峽川大嶺… 見三甲山形勝圖

筆者註

(一) 嶺下仇非는『거래하구비』

(二) 奇岩은『묵바위』

(三) 三洞은 現章把洞附近으로 西化皮甸子의 對岸이릇

(四) 一非嶺은 章把洞을 지나면잇다。

(五) 束莖은『속돌』 即라방。

(六) 蘆蘆潰墟는 富興洞標高 五五五米處에잇다

(七) 東沙洞은 富興洞及 …間에잇는 溪流注入處

×

이와가티 元永冑一行은 十八日 竹田洞을 떠나 沿江하야가다가 다시 山기슭으로 … 『오롱계구비』 … 山嶺기슭에서 … 所謂三甲山形勝圖 … 路로 下降한것갓다。

이에 그日記를 實際에 比해 詳審하니 現在에도 大體로 當時와 別로히 相違함이 업는것을 發見하겟다。 그리고 그글이 그리 能文이라고 하지못하는 反面에는 記事를 忠實히하야 要領잇게 踏査에서 實見한것이라 鄕土史를 硏究하는 後人에게는 一流文章家의 美辭麗句보다 한층더 빗난 자료를 남겻다고하겟다。

元永冑가 正宗十八年 慶源部 … 踏査한 反對로 正宗十九年十一月에는 淸原定配罪人 李汝節을 馬島海士兵으로 任命하야 同年十二月에서 翌年正月까지에 水路로(實際에는氷上)踏査한것이잇다 多少그調査態度에 元永冑보다 疎忽한點이 不無하나 亦是 貴重한 史料로 硏經齋集에『李汝節手本』이라는 題名으로 所收되여잇스므로 이것마자 解說하랴하얏스나 그分量이 相當하야 讀者로하여곰 넘우 張 … 한感을줄가 두려워하야 이번에는 割愛하기로한다。

(寫眞은 長白瀑)

現代批評의 性格

十九世紀批評의 結論的考察 ⑤

崔載瑞

모든물든은 다시금 나아가서 判斷批評에 잇서서의『價値의 虛僞』라는것을 말한다。 藝術의 世界가 價値의 世界인것은 모를은도 아니지만 그러나 한 作品이가지고잇는 全體的價値는 위선認定하지만 그러나 한 個人의 力量으로서到底히 評價할수업는 것이라고한다。 個人的인 偏見과 能力의 制限을 免치못하는 批評家가 作品의 價値에 對하야 判斷을 내린다는 것이벌써 우습은소리다。 그러니 價値의 虛僞라는 자라리『評家의 虛僞』라는것이 適切할른지 모른다고 말하엿다。 그러나 우리는 꺼구로 이러케 말할수도잇다 個人的인 偏見과 能力의 制限을 免치못함에도 不拘하고 作品의 價値에 對하야 敢히 判斷을 내린다는데 도리어 人間的인 意味와 價値가 잇는것이 아니냐고。 처음부터 判斷을 斷念하는것은 決코 批評家의 謙虛가 아니라 도리어 그反對다。 『사람은 스스로 變이 쉬우면서 變키수운 물건을 判斷하다……絕對的眞理의 名目下에 判斷하랴고하는者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쌍트·부―브의말은 有力한 證言으로서 印象主義的批評家를 새에 꽝장히 引用되엿지만 그것은決코 批評의 特權을 宣言한 것이아니라 人間的限界內에서 判斷에 忠實코자하는 謙虛를 表示하는말이 그야말로 批評的謙虛엿다 印象主義는 말하자면 批評에잇서서의 리리시즘이여서 抒情詩의 世界만을 相對로한다 스핑거―ㄴ이 『모든藝術은 抒情的이다』한것도 이것을 保證하는 말이다 그러나 批評이 抒情詩의 世界에 局限될때 그것이 性格을 가진다는것은 到底히 바랄수업다 印象과 鑑賞만을 가지고는 性格은 形成되지못하기때문이다 꾀―테도 말하엿거니와 才能은 孤獨속에서 養成되고 性格은 世界의 激流속에서 形成된다 그러나 現代批評이 抒情詩대신에 抒事詩 心理的小說대신에 行動的小說에로의 時代의要求를 代辯하고 잇는以上 그는 스스로 性格을 가지지안흘수업는 立場에 서고잇는 것이다。

以上에말한 도그마와 모랄과價値意識과 歷史觀에對한 關心은 性格에의 意欲을 證明하는것에 不外하다。 이傾向을 要約하야 말한다면 리―드는 도그마에對한 强烈한顯望을 表明하얏는데 이것은 批評家가 언제까지나 感受性의 波濤에 빠저서 印象의바다를 漂浪하는것이 얼마나 부질업고 덧업은일인가를 自覺한데서 나오는 不安이다。 그와同時에 그것은 批評家가批評家로서의 職能―即判斷的職能을確保치안허서는 아니되겟다는 긴급한心理에서 생겨난것이다。 그러나 도그마의 內容으로 드러서면 現代批評은 아직도 渾沌狀態이다 배빗트一派와가티 그것을 古典主義가운데 求하는者도잇고 또한 或種의 政治的이데오리가운데 求하는者도잇다 도그마에의顯望과 同時에모랄에의志向도 相當히 熾烈하다。 다만 이것은 古典的 敎訓主義와가티偏狹한것이 아니라 모든 方面의硏究를 綜合하야 價値의 本質을究明하고 그우에다 모랄論을樹立하랴는것이다。 리차―즈는 그代表者이나 그러나 그와가티價値論을 純心理學的으로 處理하라는 合理主義에 對하얀 相當히 만흔反對가잇다。 휴―메니스트는 非合理的인 倫理的想像作用을 主張할것이고 카토리은 宗敎的 顯依를 要請할것이다。 배빗트와 에리옷트는 各各 그代表者이다。

그므로 現代批評이 가장鮮明하게 그特色을 나타내고 잇는것은 그歷史的意識의 一面에잇서서이다。 許多한 唯物史觀的文學史는 말할것도업고 에리옷트의 傳統論이라던가 進化論的立場에서 본 리―드의『英詩의諸相』이라던가 또는 傳統과發展의 視角으로부터 過去의文學을 再檢討한 리―비스博士의『再評價』는 모두다 가튼 歷史的思索에서 우러나온 著述들이다。

이리하야 現代批評의 性格을 알자면 우리는 그『도그마論』『모랄論』『價値論』『歷史觀의 問題』로 드러가지안흐면 안되는것이나 나는 以上에서 다만 그序論을 말한데 지나지못한다

(本稿는 지난번日本英文學會에서 講演한草稿임을附記한다)

라디오 프로그람

七日(月曜)

◇午後六時 이야기『少年斥候』―『쿠오레』中 金泰午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朝鮮蹴球界에對하야』 延專 玄正柱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
◇同七時三〇分 講演『國民精神總動員第一日』 每新社長 崔麟
◇同八時 氣象報 陸軍軍樂隊
◇同八時三〇分(東)吹奏樂 伽倻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二、倂唱 가、謝花月 나、새打鈴 杖鼓 沈相健 韓成俊
◇同九時 아나운서 連作이야기 第一回『그들四男妹』 李蓉元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等國語講座(二八) 宋今璇

第一放送

◇午後六時(大)音樂劇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七時四〇分(東)講演 荒木貞夫
◇同八時(東)吹奏樂
◇同八時三〇分(東)時局讀本
◇同八時四〇分(大)筝曲
◇同九時(東)드라마

八日(火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 라디오體操(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午後零時五分 빠이올린과管絃樂(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家製品과整理』(二) 李興樹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어린이科學『映畵』 李鍾永
◇同六時一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山村民間의傳說』(南鮮篇) 車相瓚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
◇同七時三〇分 講演『國民精神總動員週間第二日』
◇同八時 歌詞 一、春眠曲 二、竹枝詞 李月色 大笒 徐山玉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管絃樂 一、愛國行進曲 二、婦人愛國歌 三、日之丸行進曲 四、勝利의旗 五、露營歌 六、軍艦行進曲 七、海ゆかば 京城放送管絃團 指揮 洪蘭坡
◇同九時 아나운서連作이야기(第二回)『그들四男妹』『둘재아들忠根篇』 李相龍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二二) 李完應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新講談
◇同六時(仙)이야기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東)歌謠
◇同七時四〇分(北京)
◇同八時(東)浪花節
◇同八時三〇分(東)時局讀本
◇同八時四〇分(東)青年時間
◇同九時一〇分(大)尺八
◇同九時二〇分(大)民謠

잘지은양복은 어데가다른가

눈안띄우는데에공이드러잇다 마침과기성복의구별

박갓양반들이 거지반다 양복으로사는 지금에 부인들도 어떠케지은 양복은 잘지은것이고 더구나 이것은 갑시 만흔것인지싼것인지 분간할줄 알어야할것입니다。 저고리깃이업쁘니 도련이 입브니하는것만 알지말고 양복도 어데를 보아야 잘한것이지 못한것인지 그것도 분간할줄알어야합니다。 첫재양복가음부터 어떠것은집이어떠지 대략아러두어야 할께고 그다음에 바누질입니다。

대체로 양복은 눈에얼는 띄여지안는곳을 잘하저어면 아조 살륭합니다。 그것을 보는데는 양복바지를 뒤집고보면 몬저 눈에띄어는바지속으로 느려진 주머니의 자올부터 볼것입니다。 이주머니의 가욱가는것을 흔 … 흥고 조흔것은순한것을 대게 도 조흔양복이고 갑도따라서상당합니다。

그다음에 수의할것은 솔기솔 양복바지의빠누질인데 솔기마다 빠르고양전하게한것은 조코 또는 단추를 다는데도 웃저고리도 마찬가지인데 면주실로 달고 단추가 퍽달라붓지안케 한것이 조습니다。

대개 웃저고리에 단추는 얌전하게 달지만 바지엣것은 웬만해서 그냥달어버리는데 어런것은 벌써 그양복전체가 써조치못한증거입니다。

또는 저고리는 에리를 만저보아서 그것이 속에빳빳하고조흔심이든것은 조흔것이고 거게가 다소간 힘이업스면 조치못한것입니다。

묵은쌀밥에윤끼업고 햇쌀밥이맛나는이치

밥이 느지안는다 허물말고 영양잇는 햇쌀을 먹읍시다

요즘추수가 다되여서 해스쌀이나왓습니다 해스쌀밥이 묵은쌀밥보다 맛이잇는것은 누구나 다잘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양력구월부터 시월경에는 일년중에서 제일 쌀이나빠게되는때가되여서 아모리조흔 쌀로 밥을지어도 밥이기름끼나고 맛이업습니다 즉햇쌀이나올 임시해서는 묵은쌀은 아주기름이 빠지고 맛이업습니다。

그러면 웨 묵은쌀은 맛이업는냐하면 이것은 쌀을오래동안 저축해두는동안 쌀의성분이 변해지고 더구나 비타민B가 업서지는 까닭입니다。

영양연구소에서 일년동안 쌀에잇는 비타민항유량의 변화를 조사해본결과 묵은쌀과 해스쌀의 차이는 여간아닙니다。 통벼그대로 저장해두면

前年	十一月	一三二
	十二月	一三二
今年	一月	一三〇
	二月	一二九
	三月	一二七
	四月	一一二
	五月	一一七
	六月	一〇七
	七月	九二
	八月	八八
	九月	八一
	十月	七八
	十一月	七七

이상에서 보면 처음 섭일월부터 십이월 정월까지는 비타민의 함유분량이 그만큼만혀든데 그것이 만일개년을 지나서 다음삼월에 올때는 이처럼줄어들어갓습니다 더구나 쌀이묵씨 변하는때는 벼를심을 양력오뉴월부터가제일 심한데 그것은 그때가되면 벼가싹을틔려고하는까닭입니다 이것은 쌀이아직도 죽지안혓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름동안엔 쌀에비타민이 업서지고 따라서 밥맛도업습니다。 우에적은 비타민이감소되는표는 통벼로조사해본것인데 쌀로 찌어두면 통벼로 두는것보다도 쌀의성질이 무척더빨리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네 가정에서는 요즘가티 햇쌀이낫슬때라도 햇쌀밥이 맛은잇서도 붓지안는다고 … 생활을 알알하하는 부인네는 햇쌀을 사지안코 묵은쌀을 먹습니다。 그러나 밥의분량이 붓는것만 생각해지 그속에잇는 비타민이나 영양분이 적은것은 생각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또는 도회지에 살면 아무래도 어년상년썩묵은쌀을 석거서 팝니다。 그러니까 아무리영양분이 조흔쌀이라지만 묵은쌀을만히 먹기는 사실도회지사람들이고 … 사람은 농촌에서 잘먹습니다

배탈낫슬때

간단한요법

요즘 가을도기퍼서 사람마다 구미가나고 식욕이만허젓습니다 어렴에일수록 음식을 너무먹고 배탈나기쉬웁니다。 만일 체한기운이잇슬때는 어쨋든 하로쯤그저먹지말고 굶는게 제일입니다 그담에 미음이나 죽을천천히 먹을것입니다。 만일배스속이 팽팽하게부럿슬때에는 끄를물에박하(薄荷)를 조곰타서 어것으로 더운찜질하면 배스속이 편해집니다。

백일해약은

비행긔

세상에 어려운것은 아여들의 백일해입니다 그런데 백일해걸린 아이를비행기를 태워서 노픈공중에나르면 낫는다고합니다 아이들은 손와도 먹지안코 비행기만타면그쯤을기치어 떠러진다고해서 여간조하하는게 아닙니다 백일해풀린 아이를 비행기에태워가지고 비행기의창문을열어노코 상천미좋좋노피나릅니다 그러면 그쫌노픈 공중엔 태양광선도조코 공기가 또 깨끗해서 백일해가 떠러질뿐아니라 빨리건강해집니다 사진은 백일해걸린 아이를의사가 진찰하는것인데 이진찰만마치고는 곳비행기를 탈작정입니다

아무나할수잇는

『잉크』맨드는법

방법은아주간단해요

004065

집안에서도 간단하게 실수업시 잉크맨드는법을 말슴드림저요재료로는

딴닌酸	一五그람
沒食子酸	四〃
硫酸第一鐵	一六〃
稀硫酸	七〃
아라비야고무	五〃
石炭酸水	五〇〃
소류―볼루―(染料)	七〃
水	一리돌

어느것이나 다 약방에가면 살수잇습니다。 여재료중에서 제일에『딴닌酸』과『沒食子酸』을 한데섞거이것을 물한릿도루(만여필붕의정은 잉크병으로 스물가량)의 거거에 탑니다。 그다음에는 다른그릇으로『硫酸第一鐵』과『稀硫酸』을 한데다서 이것을 역시 일리토르의 오분지일의 냉수에타서 둡니다。 그리고는 다시또다른 그릇에『아라비야고무』를 담고『石炭酸水』를 차츰차츰치면서 개드시 갬니다。 또냉도룰 전부를 미지근하게 데워가지고 소류―볼루―를 탑니다。 이제맨나중으로 지금까지해논 세가지것을 완전히식힌뒤에 한데합합니다 그래가지고 겁을 두겹접어서 걸러내면 훌륭한 잉크가됩니다。

빨간잉크가트면더간단합니다물감인『네오신』이십그람『石炭酸水』오십그람을사다 물리토루를순비해노코 먼저처럼 이물의 오분지일만 미지근히 데워가지고 물감을 타노코 또『아라비야고무』와『石炭酸水』를 합치고 이두가지가 완전히식은 뒤에는 남어돌을붓고 헝겊으로 걸르면 됩니다。

잉크만히쓰는 사무소가든데서는 이런식으로 맨드러쓰면퍽경제됩니다。

겨울준비하는데

조흔숫골르는법

"잘못하면헛돈만씁니다"

어아르로 더욱만히 씨올수록 한동안 갑시 무척 올르더니 공정가격이 된다음부터 조곰첫습니다。 그런데 수테는 조코 나쁜 구별도 만커니와 잘못하면돌도차지못하고 돈모지 서언치안흔 수를사기가 쉽습니다。

어아래 조흔숫을 골르는법을 말슴드리겟습니다。 이것은 눈으로보아도 대개알게 됩니다。

一、색태―비깔이 은회색(銀灰色)으로 뻐―야케되고 선명하광태이 잇는것이조코。

二、형태―형상이 정확하고결이고르고 껍데기가 붓고러진자죽이가는것이 조흐며횡단면이 조개껍질처럼 아른아른한것이 조흔것이고

三、경도―단단한것이조코

四、음향―숫끼리 서로맛부디치면 쟁쟁한 맑은소리나는것이조코

五、촉감―손으로 만저보아서 습기가업고검정이가너무뭇지안는것이조습니다

이상에스것은 눈으로보아서 아는것이지만 실제써보아서 아는것은 화력이 강한것이라야 조코 수치될때 튀거나 몹씨 숫냄새가나는것은나쁜것입니다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短篇小說……四百字原稿紙五十枚以上七十枚以內
賞=一等一篇 壹百圓 二等一篇 五十圓

★戲曲……一幕物로、四百字原稿紙三十枚以上五十枚以內
賞=一等一篇 五十圓 二等一篇 三十圓

★文藝評論……題目隨意、四百字原稿紙三十枚以上四十枚以內
賞=一等一篇 三十圓 二等一篇 二十圓

★詩……題目、長短隨意
賞=若干篇 每篇 五圓

★時調……題目長短隨意
賞=若干篇 每篇 五圓

★童話……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二十枚以內
賞=若干篇 每篇 十圓

★童謠……題目長短隨意
賞=若干篇 每篇 五圓

★實話……實際잇는일로서四百字原稿紙二十枚內外
賞=若干篇 每篇 十圓

★兒童作品……自由畫、習字、作文
賞=入選品에薄謝進呈

應募期限 十二月十五日까지

注意 應募作品은 如何한境遇를 不問하고 一切返還치아니함 原稿末尾에반드시作者의 住所姓名을 明記하고 封皮에新春文藝라고쓸일

入賞作의 版權은本社所有

朝鮮日報社學藝部

長篇小說 愚氓 【163】

朴泰遠 作 洪祐伯 畫

슬픈邂逅(3)

어날 오후 네시 정각에 화수는 삼월(三越)오복점 안에잇섯다。

어려케 거리로 나와 백화점을 찻는것도 생각하면 퍽 오래간만의 일이엇다。 그는 오늘 여꼿에 조고만 사무가 하나잇섯든 것이다。

사무?―― 그는 벗을 위하여 면년필을 하나 구하고시펏던그것이다。

승강거를 상층에서 나려 화수는 문방구부로 발을 내어노핫다 오늘 그의 마음은 평화로윗다。 제자신이 소용되는 물건을 구하는 것이라면 도리어 오늘만치 그의 마음이 기뻐지는 아햇슬지도 모른다 그는지금 차문달이가 그러캐도 한자루의 면년필을 탐내던 것을생각해 내고 어어서 그에게 그것을 자기가 선물할 때 그의 만족하여 하는 얼굴을 눈아페 그려 보앗다。

그러나 지금, 차문달은 계동 하숙에서 한마차 들어온 장작을 해전에 다 패어 치겟다고 버서제친 웃통에 땀을 빨빨 흘리며、물론 화수가 이러한곳에서 이러한 궁리를 하고 잇슬것을 꿈에도 생각 못할것이다。

화수는 며칠 전에 학교에서 무사히 급제하엿다는 성적통지를 바덧슬 당시의、차문달의마치 어린아이와 가티 그처럼이나 조하 날뛰던 광경을 다시 생각해 내고 저모르게 빙그레 우슴이 입가에 떠 올랏다。

물론、차문달의 이번 기쁨은 작년 이만때、무난하게 전문의 교 입학시험에 통과되엇던 그때 그 기쁨만은 못하다。 자기 학력에 아무런 자신도 못가지고 잇는 차문달은 일권 시험을 치르고 돌아 왓서도、무어 결과를 기대려 볼 것도 업시 스스로 단언하고、그리고 구십구 퍼―센트는 낙재라고 성적발표까지의 며칠동안을 울울하게 지내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세월은 참말 빠른 것이어서、어느틈에 이년생이 되엇나?――하고 생각하면 화수는 역시 고만한 일에도 고만한 감개가 업슬수 업섯다。

작년에、차문달이 회문을 졸업하고、보성전문에 입학지원서를 내어 노핫슬 때나、또 이번에 학년시험을 치르고 낫슬 때나、화수는 당자에게 지지안흘 긴장된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렷던 것에 틀림 업섯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옹색한중에도 공부를 하여보겟다는 차문달―원래 공부에는 재주가 업서 남보다 여러해식 떠처거며 겨우 중학을 마친 그는 전문학교만은 어떠케 그런 열업시 정한 햇수를 가지고 남과 가티 업을 마치고 십다 원하는 것이다。 성적이 압만볼랑하드라도 전문학교졸업장을 하나 어더만 가지면 어떠케 수선하여 취직할 도리가 잇슬것이요 취직만되면 그는 그의어머님을 모시고 외로운모자는 그룰의생활을 경영하여갈수 잇슬것이다……

화수는 층게를 올라 갓다。 식당으로 가서 간단하게 점심이나 먹을까?―하고 문득 그러한 것을 생각한 까닭이다 그것은 화수로서는 일쩌기 업든 일이다。 그는 전에 백화점을 드나들면서도 별로 식당에 들어가 차 한잔 마실 욕망을갖지 안핫것다。

그러나 그가 사층으로 올라가 식당을 향하여 발을 옮겨 노핫슬 때 뜻 밧게도 한 여인의 모양이 그의 눈을 잡고

그는 저모르게 그곳에 우둑걸음을 멈추어 버렷다。 그곳 귀금속부 진열장 압헤가 그 젊은 여인은 이편으로 옆얼굴을 향한채 그속에진열된 보석반지를 차례로 구경하고 잇섯다。

(옥전이다。 옥전이다……)

화수는 망연히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입안 말로 중얼거렷다。

그러나 옥전이는 이미 옛날 보던 옥전이가 아니엿다。 그때 가리 장수산에 놀던 순진한 시골처녀로서의 옥전이가 아니엇다。 어느틈엔가 그는 머리를 얌전하게 쪽젓고 그 우에 꼬처 잇는 비녀며 귀개며 뒤꼬지며 그러한 금부치들……손에 들린 핸드빽과 화려한 옷의를 수노흔 양산……옥전이는 어며 한 사람의 안해엿다。

(옥전이。 옥전이……)

화수는 저모르게 다시 입안에 중얼거리며 보고 다음에 꿈에서나 깨어난 사람 가티 발길을 돌려 승강기 아프로 갓다。 그러나 그가 조굼 잇다 우에서 나려와선 승강기 안으로 걸음을 옮기려하엿슬때 등뒤에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들렷다。

『웬、저를 안 보시고 피해가시나요?』

어느틈엔가 그를 발견하고뒤쪼차온 옥전이엇다。 화수는 회석과 가티 그곳에가 섯다。

回春의歡喜

枯木과갓은衰弱한몸으로 長嘆息하든早老無精力을 靑春으로再出發케하는

먹으면대번에듯는 キング、オブ、キングス

生理學大家 日、獨醫學博士 羽太銳治氏發明

靑春의持續延長法

(發明者) 羽太先生談

男子면 그누구나 한번經驗하게되는것은 靑春時期에 急激히 오는 身體의變調이니 即 音聲이變해지며 事物의理解가 熟成해지는同時에 모든것에눈뜨게되야어느듯 成年男子로 一變해지는것이다 이와가티 되는것을醫學上으로는 第二次性兆라고 일컷는바 그의原因은 腦下垂體에서分泌하는 一種의호르몬이人體의下部에잇는 攝護腺 精囊等에作用하야 完全한發育狀態에 이르게하는때문이고로 萬若 이腦下垂體가 病的症狀으로잇서 그의機能이 障害를 바든때에는 그에따러 모든發育이中止되며 衰弱해저서 早老의現象을 이르키고 無精力한生活를하게되는것은 醫學이證明하는바이다

그러므로 性的障害를 根本的으로 治療하야 靑春의持續延長을 圖謀하랴면 이腦下垂體의活動機能을 强케함이 最重要點인것을 諸君은 잘理解할줄로 밋는다 余의發明한『キングス』는 以上과如한 原理를 基礎로 腦下垂에서 分泌하는 性호르몬만을抽出하야 그것을主成分으로하고藥效의 快速發揮를 目的해某種의化學藥品을 配合하는데에成功하야 製劑化한것인바 服用한지不過幾分間이면 精力이湧出해지고 心身이爽快하야 早老無力이 完全回復되는同時에 期待한바의目的이 훌륭이達成케되며 모든不滿의唯一한 解決을수잇는最强最速한 科學的回春劑임을 斷言하야마지안노라。

……무엇보다도事實이證明하는 服用實驗者의感謝文을보라……

驚嘆할藥效이라고感心할뿐

(仁川) 趙東治

절머슬때에는 그러치안튼몸이 五十歲에들면서부터 갑작이 陽氣가업서지더니 精力을조곰만消費해도 疲勞와倦怠가 莫甚함은外라 頭痛과眩氣症까지甚해 臥席呻吟케되든음이 貴堂의『キングス』를 服用한後로는 나날이 元氣가盛해지고 氣分이爽快하야 만사람가티되엇사오며 疲勞를모르고지내갑니다또는그러케몹시苦痛을받든 頭痛과眩氣症조차 씨슨듯이업서저 方今은 튼튼한男子로서의 一分子가 되엿습니다 十圓分一瓶으로 이러케질흥을참으로 꿈밧기오며 빠른藥效에는 그저그저驚嘆할뿐이로소이다 될수잇는대로 友人에게까지도 널니宣傳해드릴作定이오며 十圓分大瓶도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이런藥은七十平生처음이다

(金泉) 鄭化鎔

衣食에걱정업는 七十의몸으로 살만큼사러 시방죽어도 限될것은업습니다마는 來訪한親戚들이 올적마다東京서파는『キングス』가먹으면 곳回春이된다고 評判이자하기로 五圓分中瓶을注文해다먹어보니 여러해동안 老衰로衰弱해든몸을 대번늘케해주는데는 藥이라곤 信用치안튼老生으로서도 이藥만은 神藥이라고服用해사오며 더욱이 藥效의 偉大함을 確認하는바입니다 이런藥은 七十平生처음이오며 전과가티 五圓分中瓶 또보내주시되 전번약은 다服用하야 업서젓사오니 先金으로보내것이 到着되는대로 急速히보내주소서連服하랴합니다。

平和한家庭을이루고지내다가

(釜山) 成玉烈

三十이못된몸으로서 衰弱한몸과無精力으로 憂鬱한그날그날을 지내오니 悲觀되기 짝이업서사오며 父母의命令으로 不得已한 노릇이나 早婚한것이 後悔莫甚이엇습니다 더욱이 近日에는두손잇을 조화하라면 머리가 핑핑돌며 精神이잇든잇득하야 하든일도못하는수가 만사오니 참으로 기가막혀습니다 그러든中貴堂의『キングス』가 하도宣傳이되며 快速回春이된다기로 九疑一信으로 注文服用해든것이올던바 나날이 달너지는藥效로 오늘날 다시完全한男子가되고보니 그엇지 가만히잇슬수가 잇겟습니가 이에燃餐을드려 감사의뜻을 表하는바이오며 平和한家庭으로 잘지내갑습니다드리는同時에十圓分一瓶또注文하나이다

最强最速한强精劑

最新『性호르몬』學說에 立脚하야發明된『キング、オブ、キングス』는 神經機能衰弱으로因한不眠症、頭痛、眩暈、疲勞、倦怠一般腦病症과 또는 生殖器系統衰退로因한 精力減退等모든症狀에 그强力한治療作用이 快速히發揮되는 優秀한藥效가잇서 靑年、中年은勿論이요 아주衰弱한老年이라도 本藥을規則잇게만服用하면 반드시 體力精力이回復되고 忽然靑春化해서歡喜의길로 들게할것이나 自己의陽氣에對하야 不完全者 自覺케되거든 하로밧비 本劑로快復시키시기를바랍니다

注文은直接本舖로

男子의陽氣不足症은 健全의一途로 更强化케하는 藥으로서는 下記의藥價는 決코高價가 아닐줄로生覺사오며 또는 藥效를證明키爲해 本舖에서만 直接販賣하오니 服用하시려는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督責、또는振替、或은代金引換便으로 注文해주시면 急送하오며 送料는 四十七錢이오나 十五錢만加算해주시되 代金引換注文은 送料十五錢을郵便切手로 先送해주십시요

藥價 (滿洲國은現先金送藥함) 小瓶(一〇〇粒) 二圓 中瓶(二六〇粒) 五圓 大瓶(六〇〇粒) 十圓

東京市芝區濱松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春泉堂 振替東京七七一番

新興間島省

五族協和의理想境 朝鮮人의第二故鄕

朝鮮同胞의血汗開拓벌써半世紀

現住者는實로五十萬!

沿革

間島는 距今二千年前 高句麗時代의 鴨綠江上流를中心으로 勿吉、靺鞨이居住하얏다가 部將大祚榮과 協力하야 唐軍을擊破하고 東牟山(現吉林省樺甸縣)에 都邑하고 獨立하야 渤海라稱하엿든바 그後 寧安縣東京城에遷都하엿고 新羅時代에는 王族哈富가北滿하야 延吉河岸에居住하야 完顏氏라稱하엿고 李太祖의五代祖穆祖가布爾哈通河와 海蘭河畔의南京斡東의 千戶官으로 來駐하엿스므로 李朝五百年의 發祥地는 間島라고할수잇다 그後 淸의全盛과함께 同胞로서의 間島開拓功勞를無視하고 壓迫이甚함에따라서 [illegible] 康熙帝는 祖先의發祥地인 白頭山定界査定의必要를認하고 接伴朴權、閔官金慶門等을 派遣하야 白頭山天池附近에 定界碑를建立하얏든바 李朝가衰頹하게됨에 더욱 壓迫이甚하얏든바 明治二年에 北朝鮮의大凶作으로因하야 다시 越境耕作을開始하야 間島의再開拓에着手하얏섯다 明治四十年에는 在間同胞의數가 九萬에達하얏스므로 韓國統監府伊藤統監은 同年八月에 龍井에統監府派出所를設置하야 同胞를保護하다가 同 四十二年에 日淸協約이 締結됨에따라서 間島總領事館을 設置하야 今日에至하얏고 大正八、九年엔 騷擾事件으로 因하야多數한 犧牲者를내엿스며 中華民國當時에는 延吉에東南路道署를 置하엿다가 同四年에는 道尹公署로改稱하엿고 同十八年에는 延吉市政籌備處로改稱하엿다가 滿洲建國後吉林省附延邊事處를 置하야間島統治에 當케하엿든바 康德元年十二月에 延吉、和龍、汪淸、安圖、琿春五縣으로 間島省을新設하엿섯는데 間島一帶는 建國以來로此에不平을품은 民匪와蘇聯의 赤手로因한共匪의 擾亂으로騷然의極에 達하엿든바 日滿軍警의徹底討伐과 協和會及間島協助會等의 宣撫工作과歸順工作으로因하야 再昨年부터 治安이安定되여 明朗間島建設에 標準的發展途程에잇는 間島는總人口의七割强이나 同胞인즉 朝鮮의延長地帶로 이야말로第二朝鮮이다

地勢

本省은 東經一二八度八分으로 同一三一度五分、北緯四一度五分으로 同四三度五分의 間에位하야 總面積은 二九、三九五平方粁(一、九〇七方里)地域으로 東은 蘇聯烏蘇里에連하고 北은 牡丹江省寧安、東寧兩縣에接하고 西는 吉林省敦化、樺甸兩縣과 通化省撫松、長白兩縣에隣하고 南은 豆滿江을隔하야 北朝鮮에 連하얏슨데 今後는 山岳이重疊하야 森林의財源이 豐富하며白頭山支脈이省內各縣을 貫通하얏고 其間에布爾哈通河、海蘭河、嘎呀河、密江、琿春江、汪淸江、松花江、豆滿江等諸河가貫流하야 水運의便이잇고 沃野를形成하여大陸的氣候와 西伯利亞寒流의 影響으로寒暑의差가 甚하나 降雨量이適度하야 農耕에適當한地帶이다

行政

間島의行政은 昨年十二月新省官制發布에依하야 省公署에는省長、次長、省長官房에 庶務科、經理科、地方科와 民生廳에 文敎科、社會科、土木科와 實業廳에 農林科、殖產科、商工科、司法科、保安科、衛生科와 [illegible]를 置하고各縣下에는 街村制를實施하야 延吉、龍井、圖們、琿春四街와 延吉縣十九村、汪淸縣六村、琿春縣八村、和龍縣九村、安圖縣五村으로 各其行政에當하고잇다

人口

本省은 治安의恢復과 아울러 人口가 激增되는一方으로 昨春以來 鮮滿拓殖會社의移民地帶로서 同胞農民의移植에伴하야 顯著한人口의 增加를보이고잇는데 現在日本內地人 一萬一千百五十八人、朝鮮人 五十一萬四千三百八十二人、滿洲人 六萬二千七百六十八人、漢人八萬九千四百六十五人、外國人 百五十二人合計六十七萬七千九百十七人인바 在滿同胞의滿半數가間島에居住하다

交通과貿易

交通機關으로는 豆滿江岸國境의 表玄關인圖們을基點으로 新京에至하는 京圖線과 佳木斯에至하는 圖佳線과 開山屯을 基點으로 朝陽川에至하는 朝開線等鐵道가잇고 延吉에本店을置한 間島自動車會社에서 各縣에連絡하는 自動車의 定期運行이잇스며 咸北訓戎을基點으로 琿春에至하는 輕便鐵道의便이잇고 滿洲航空會社에서 經營하는 新京延吉琿春淸津間의 定期旅客航空便이잇서 每週火、金曜에就航하고잇서 自慢할만한 發展을보이고잇다

貿易狀況을보면 京圖、圖佳兩線의開通直前까지는 交通의不便으로 商業의不振에伴하야 貿易이 衰微한狀態에陷하엿든바 兩線의全通直後에 內地方面商人의入間으로因하야 數年內로는 延吉、龍井、圖們、琿春四街는 貿易都市化되여 一個年의輸出高는 一五三、四四二、一二三圓이고 輸入高는 一七五、五七九、九八五圓에達하는바 今後地方의 發展과 人口의增加에따라서 遞年增加될것이다

省立校長의嚆矢

延吉國民高等學校長 李台鍾氏

今春 氏가 延吉國民高等學校校長으로 昇任되엿다는 朗報가 傳播되엿슬때 一般朝鮮人社會에서는 今後에 期待와함께 기뻐한바 컷거니와 氏는 일즉이 京城高普를 것처 水原高農을卒業後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技手를 拜命하야 勤務中 特히 作物品種改良에對한 硏鑽을 기리한바잇서 其後 水原高等農林學校[illegible] 康德二年四月 延吉縣學校副校長으로 [illegible] 多數한英材를 敎育하엿스며 今春에는 同校校長으로 昇任되엿는데 이로서 滿洲省立中等校長으로는 氏가 처음으로 嚆矢로 삼게되바 아프로의 氏에 對한 期待는 적지안타고하겟다 (寫眞은 李台鍾氏)

間島開拓의先驅者

東滿林業社長 崔允周氏

氏는 當年五十二歲의 壯年政治家로서 大正六年에 出生地인 [illegible] 來間以後 [illegible] 昭和九年엔 朝鮮中樞院參議로 就任하엿다 [illegible] 頻順하야 昭和三年까지 延吉朝鮮人民會聯合會長을 當任하야 間島同胞의 代表로서 同胞의 現在와 將來를 爲하야 外務省、朝鮮總督府、軍部에 때때로 陳情하는 同時에 延吉市街建設에 莫大한 努力을하엿고 滿洲建國後 間島省新設運動에 寢食을 忘却하고 活動成功한 政治家이오 間島開拓의 先驅者이다 昨春에 間島協和會省本部委員으로 社會事業에 全力을 傾注하고잇는 一方으로 지난여름에 東滿林業株式會社를創立하고 社長에 就任하야 經濟界에서까지 活躍하고잇스며 이番에는 朝鮮人特設部隊編成에對한 後援에 專力을 다하고 잇는데 百折不屈의 果敢한 活躍은 아프로 얼마나 活躍할른지 囑望하는 바가크다 (寫眞은 崔允周氏)

日滿提携精神下 特異한敎育方針

移民部落敎育機關不備가恨事

本省은 各民族의 雜居地임에 따라 言語와 風俗習慣이 相異하므로 省文敎科에서는 敎授用語를 滿洲語로하는 滿洲人子弟에게는 滿洲國의 編纂敎科書를 使用하고 國語로하는 同胞子弟에게는 朝鮮總督府編纂敎科書를 使用하는 同時에 補助敎科書를 編纂하야 肇國精神을 修得케하며 日滿兩國의 永遠한 提携와 融和統合을 圖하야 各縣에 二十四名의 日語敎師를 配置하야 省當에 볼수업는 特殊한 敎育을 實施하고 잇는데 省立中學校四個校와 私立中等校七校와 小學校로는 縣立 百六十四校 日本側七校 滿洲人私立學校九校 外國人側 二十校 合計二百校에生徒數는 二萬五千五百八十九名이다 그리고 民衆學校 二十九校와 各縣에 民衆敎育館이 잇서 成人敎育에 當하고 잇스며 아직 移民部落의 敎育機關不備로 不便이 잇스나 不遠에 完全한 敎育機關이 設置되리라한다

囑望되는名行政官

延吉縣公署行政科長 盧起燕氏

氏는 咸南咸興出身으로 昭和六年京城帝國大學法科를 卒業하고 同十二年四月에 渡滿하야 吉林省琿春縣副參事官을拜命 其後間島省新設에依하야 延吉縣副參事官을 歷任今春職制改正됨에따라 延吉縣行政科長으로轉職奉職中인바 間島省內에서도 有名한行政科長으로 名聲이 노픈데 特히延吉縣과가튼「떼리케-트」한問題가 만흔곳에서도 能히敏腕을發揮하야 名行政官으로서의 職分을다하고잇슴은 在留同胞로서도 반가운일이다 아직三十七歲인氏의 官吏로서의 將來는 囑望되는바 만타 (寫眞은盧起燕氏)

敎育界獻身一貫

東興國民高等學校長 林啓學氏

波瀾과曲折의 十七年을보와온 間島朝鮮人經營의同校는 大成과 함께 學部開井에六百健兒를안고 一大偉觀을이루어잇거니와 同校長林啓學氏는 咸南洪原郡出身으로當年五十歲、大正十年 當時混沌한間島에渡江 몸을敎育에바처 明東中學敎員으로 就任하엿스며 其後間島懇民敎育硏究會編纂部長 大成中學敎員等을歷任 昭和六年 十月東興中學校長으로就任 추어 同校經營에注力하여온바 渡江 十五餘年間 敎育界에獻身으로一貫해온 氏의過去에는 敬意를表하지안흘수업다 더욱同校長을補佐하야 鄭一光敎務主任以下職員一同은 氏의 獻身的精神으로 校勢는 나날이 擴大하여가는데 同校도 今春新敎育令實施에依하야 現在校名으로 改稱된後 大成國民高等學校와 함께 期待가 크다 그르로 한가지 滋味잇슴 것은 今春新京에서 開催된 全滿中等學校蹴球大會에 間島代表로 出征햇든 同校는 本大會에서 榮冠의 優勝을 하야 蹴球間島를 크게 大氣焰을 吐한것은 同校는 勿論 全間島를 爲해서 慶賀할바이다 【寫眞은 林啓學氏】

間島同胞의恩人

隱退靜養中인 李庚在氏

氏는 咸南北靑出生으로 明治四十年에 醫務囑託任官으로 官界에投身하야 間島同胞를因하야 同年八月에 間島總領事館에 警部로 轉任한後 在間島同胞를爲하야 非常한活躍을하다가 大正九年에 辭任하고 昭和元年에 龍井朝鮮人民會長으로 被選되엿다가 昨年九月 治外法權撤廢와아울러 辭任하엿는데 昭和九年九月엔 新京滿蒙日報의 創刊當時 初代社長으로 在間同胞의指導役割에 莫大한貢獻이잇는 間島의 開拓功勞者이다 性格이溫厚篤實하야 全家財를 社會事業에 提供한 義士이오 間島의 恩人인데 近日은 延吉에 移住하야 社會方面에 不干涉主義를 主張하며 靜養하고잇는 當年五十九歲의 篤志家이다

三道溝의功勞者

李晩周氏

氏는 慶北奉化郡出身으로 今年五十一歲의壯年活動家이다 일즉이 咸南 京畿地方에서 多年間 商業을經營하다가 距今十四年前 當時어지러운 間島에渡來 和龍縣三道溝에 再任케된氏는 朝鮮人民會長其他 公職에就하야 地方發展과 同胞의 生活을爲하야 만흔努力을한바 特히 匪賊의禍를입어 市街의三分의一以上을 燒失햇든 三道溝를하여금 今日의 發展을보게까지 回復식히는裏面에는 氏의不少한 功勞가 숨어잇다고한다 氏는지금 明新村長、協和會三道溝分會靑年團長等多數한公職에잇서 더욱더욱 地方을爲하야 努力하고잇는데 地方有志로서 미듬성만흔人物이다

百草溝의一人者

汪淸興產組合長 朴根植氏

氏는咸北鏡城出身으로 明治四十年渡江 大正五年부터 昭和七年까지 十七年을하로가티 百草溝普通學校敎員으로 兒童敎育에 盡瘁하엿스며 其後四年間百草民會長으로在勤 現在는汪淸金融會長 協和會分會副會長 興產組合長等을 兼任하고잇는바 勤實한點에잇서 氏의信望이厚하며 今後活動도囑望되는바크다하겟다

市民의信望밧는

寄樹村長 金河淸氏

氏는咸北鏡城出身으로 當年五十一歲 일즉이 朝鮮公立普通學校訓導로서 間島에 在勤하바잇서 [illegible]는데 大正十一年에汪淸縣 百草溝 朝鮮人民會長에 初任以來 前後 大同會 同民會長으로 被選 其間 今日 百草溝地方을 爲하야 獻身努力하여 왓스며 [illegible]月現在(百草溝)의 村長에 任命 地方發展을 爲해 [illegible]는바 氏의 꾸준한 努力은 市民의 絶對的信望을 밧고잇서 氏의 將來는 地方을爲해서 期待되는바이다 (寫眞은 金河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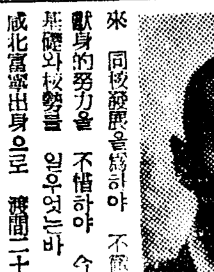
圓滿한人格者!

和龍縣公署行政科長 白泰雲氏

氏는慶北達城郡出身으로 今年四十一歲 溫厚한行政官으로 名聲이노픈데 일즉이大邱農林學校를卒業 慶北產業技手로四年間奉職 石川縣農業株式會社社員 朝鮮總督府外務課[illegible]를拜命하야渡滿 其後[illegible] 間島省新設로間島省屬官[illegible]하얏든바 今春縣事務官으로 [illegible] 其手腕을發揮하고잇는바 和龍縣은省內에서도 가장朝鮮人이 多數居住하는地方인데 氏와가튼 圓滿한人格과 識見을가진名行政官의 今後手腕이 大端히期待된다 (寫眞은 白泰雲氏)

德望노픈敎育家

延吉明倫國民優級小學校長 張寅秀氏



延吉의 事情을 잘아는 識者로서 近來日新月將의 擴充을해나가는 明倫學校에 一點지안는이 업스리라고잇는데 同校長 張寅秀氏는 昭和十年同校長에 被選以來 同校發展을爲하야 不惜하고 不眠不休 獻身的努力을하야 今日의 基礎와校勢를 일우엇는바 氏는 咸北富寧出身으로 渡間二十年에 이르는바 일즉부터 儒敎를信奉하엿스며 間島儒林會에 끼친氏의功績은 多大한바잇서 現在同會洪會長과함께 德望이 노픈 人物로서 會內에信任이 厚한바 氏는延吉以外에도 二個所의 明倫學校長을兼任 全혀 一生을敎育에獻身하야 邁進하고잇다 同明倫學校는 昭和十年二月開校 當時八十名의生徒가 今日에는 二櫃의新校舍新築과 八學級五百餘名의 大發展을보이어 一般社會의 期待가크다 (寫眞은張寅秀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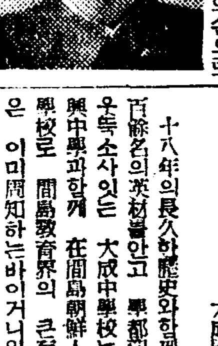
信望잇는行政官

延吉街公所行政科長 黃乙鳳氏

氏는 京畿仁川出身으로 大正十四年에 京城法專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新義州地方法院書記에任命되여 六年間勤務하고 仁川에서 司法代書業을開業하얏다가 昭和九年에 延吉에移住하야 司法代書業을經營하는一方으로 實業方面에活動하야 最近에는 相當한財產을 蓄積하야 成功하엿고 地方의 信任이큼에따라서 今年七月에 延吉街公所行政科長에 就任하야 敏腕을揮하고잇는 當年三十六歲의 靑年行政家인데 公職으로 延吉商工會評議員、間島商事株式會社取締役으로 그의前途가가장 有望하다

和龍의有力者

智新村長 韓龐基氏



氏는咸北鏡城出身으로 當年五十四才 國境의故鄕에서 和龍에渡江하여 半生을間島에서 지난분으로도 한때는 小學校敎員으로 一般의信望이厚한氏는 智新社長 同保長等을歷任 現在는 智新村長으로 全村民을爲하야 活動하므로서 지어졋다는데 其名望에는 當時의官吏까지도 感服하야 民論에도 協和會分會副會長 和龍區法院調停委員으로서 和龍縣民에 獻身努力하고잇다 【寫眞은 韓龐基氏】

實業界의有力者

東拓頭道溝駐在員 許相舜氏

[illegible] 其手腕을發揮하고잇는 [illegible] 文章은有名하야 過去中華民國當時에 [illegible] 全村民의손으로 解決의陳情文은 [illegible] 이地方實業界의 重鎭으로 期待가크다 (寫眞은 許相舜氏)

敎育界의功勞者

大成國民高等學校長 朴載厦氏

十八年의長久한歷史와함께 六百餘名의英材를안고 學部開井에 우뚝 소사잇는 大成中學校는 東興中學과함께 在間島朝鮮人經營學校로 間島敎育界의 큰存在임은 이미 周知하는바이거니와 同校가今日의 確固한 基礎우에 經營되여가는 裏面에는 同校長 朴載厦氏의 苦心慘憺한 努力이잇는것이다 氏는 咸北吉州出身으로 當年四十五歲 일즉이 渡間하야 全혀敎育과 社會를 爲해서 今日까지 獻身努力하여온 間島敎育界의 功勞者로서 一九二一年東興中學校의 創立者의 一人으로 六年間理事兼敎員으로 在任 一九二〇年부터 다시大成中學校設立者兼同校長으로 服務中인데 氏의 豪宕 剛直한 性格은 何事에나 堅忍不拔의 努力으로 邁進하고잇스니 同校를爲해서 아프로도 더욱期待되는바가만타 이제 同校의 現況을보건대

創立 大正九年七月十一日
學級數 八學級
職員數 一五名
學生數 六五〇名

으로 本年四月滿洲國新敎育令에依하야大成國民高等學校로 變更 그內容外觀을 一層擴充하엿다 (寫眞은朴載厦氏)

間島省紹介版을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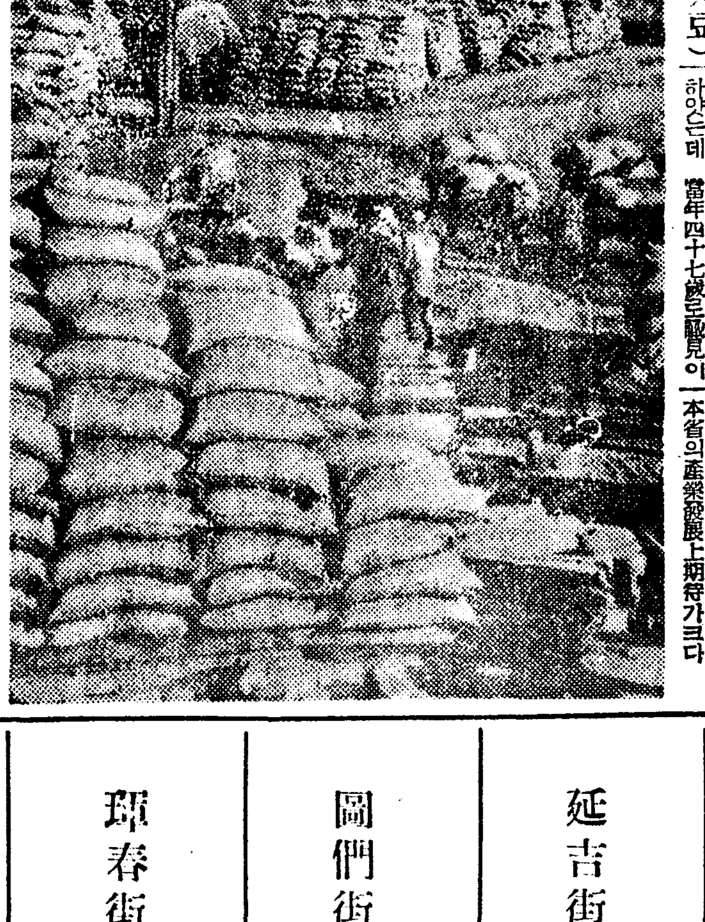
誕生六年의 新興滿洲國은 民族協和 아직 日淺하건만 建設以上의 飛躍的發展을 보이어 內外注視의 的이되어잇거니와 東滿의 一隅를占한 吾間島는 이미 年의 오랫동안 우리들의血汗을흘니며 開拓해노흔 第二의故鄕입니다 한때는 無謀蠻暴한 舊軍閥政治에 壓迫의 辛酸도 多하엿으며 또는 過渡期의 思潮的 混亂도 겪고 現實에는 匪賊의 跳梁에 險山을越하고 百年을 울지내 間島입니다 그러나 歲月은흘느고 時代는 바꾸어 五色旗는 瑞祥을 띄고 [illegible] 間島는 이미 新興滿洲帝國의 鐵石우에 서고 國內는 王道樂土의 [illegible] 安住를 바라보게되엿스니 이 아니 반가운 일이며 다 하지안으릿가? 도리켜보건대 이미 이땅에 安住를하는 間島 五十一萬 其中에는 官公吏로 또는 [illegible] 活躍한 [illegible]을 보이고잇스니 이 또한 慶賀치 안흐릿가? 本支局은 故에 吾間島의 자랑스런 人物을 限定된紙面으로나마 紹介코저 計畫하야 [illegible] 多事한 秋節이라 不在로 뵈옵지못한분도 不少하엿스며 其他 [illegible] 本紹介版은 모든것이 不足함이 만습니다 다행히 讀者諸位는 本支局의 誠意만을 容納하야 後日의 機會를 期待하여 주시다면 이에서 더 感謝함이 업겟습니다 그르로 本版의 原稿가 殆半脫稿되든 十月二十五日 間島省內延吉을비롯하야 龍井 圖們等 十六個所에서 一齊히 今回決定된 滿洲國軍 間島朝鮮人特設部隊의 大祝賀會를 開催하게된것은 우리들의 큰깃븜이며 또한 本版發行에際하야 慶賀치 마지안을수 업습니다

間島延吉支局長 金熙一

產業界의指導者

間島省農林科長 權重植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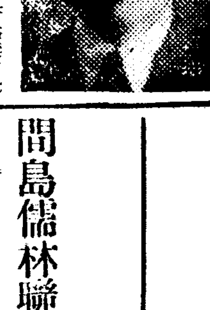
氏는慶北延城郡出身으로 大正三年에任官되여 朝鮮總督府 [illegible] 郡守와理事官、開城府尹을 歷任하고昨年十一月에滿洲國의 招聘에依하야間島省理事官農林科長에 就任하얏는데 當年四十七歲로壯年官吏이나 卓越하고手腕이豐富하야 本省의 產業開發에全力을 傾注하야過去一年間에顯著한發展을보이고잇서 本省의產業發展上期待가크다



(寫眞은 山積한大豆)

少壯官吏로有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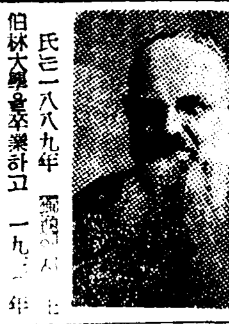
間島省殖產科長 李康璨氏



氏는 全北任實郡出身으로 일즉이 山形高等學校文科와 京都帝大法科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大同元年에 滿洲國 國務院總務廳에 就職하야 康德二年엔 錦州省公署에 轉任하엿다가 同四年에 間島省 省長官房 文書科長으로 轉任하엿다가 同年七月에 殖產科長에 轉任하야 今日에 至하엿는데 間島唯一의 龍井女子實業傳習所長、間島保導所長의 要職을兼하야 不振에 陷하여잇는 間島의 殖產發展에全力을 傾注中인데 氏는當年三十六歲의 少壯官吏로서前途가크게囑望된다 (寫眞은李康璨氏)

偉大한宗敎家

天主敎司敎 白化東氏



氏는一八八九年 [illegible] 伯林大學을卒業하고 一九[illegible]年 哲學博士學位를 어덧스며 一九二一年來鮮 翌二二年에延吉天主敎神父로來間 爾來全間島에 布敎와敎育普及으로 만흔活動과 努力을하엿스며 特히病院과學校는 곳곳에敎會와함께 設立하야 恩惠를 베프럿는바 現在省內敎徒一萬五千 各學校生徒總數一千六百 年敎區經費十萬圓으로 其人格과德望은 宗敎家로서 偉大한바가만타 (寫眞은白化東氏)

延吉地方의重鎭

延吉金融會長 孫定龍氏

今은 延吉農商互助組合長、延吉商工會副會長、協和會延吉街分會副會長、大和炭礦會長、延吉區法院調停委員、延吉金融會長으로 文字그대로 延吉代表로서 多角的으로活動하고잇는데 氏는赤手空拳으로 渡間成功한바 節儉과勤勉이兼備하고 特히外交手腕엔間島의第一人者이란 定評이잇다 (寫眞은 孫定龍氏)

經濟界의權威者

間島林業株式會社長 李容碩氏

氏는 咸北會寧出身으로 漢城師範을卒業하고 原籍地에서 [illegible] 物商을 經營하며 咸北道會議員을 歷任하고 間島에 移住하야 昭和八年에 間島穀物株式會社와 間島林業株式會社를 創立하야 社長에 就任하엿스며 新京滿鮮日報社長과 滿洲國民生活指導委員 [illegible] 餘年間 [illegible]을 經營하다가 [illegible] 滿洲事變直後渡滿한바잇서 着眼한氏는 延吉에 [illegible]을開業 爾來六年間 苦心하야 今日에는 鞏固한地盤을 닥것는데 其의 製品은 [illegible] 人蔘不老酒 [illegible]

氏는 平南順川出生으로 大正七年에 來間하야 數年間商業에從事하다가 昭和三年까지 延吉朝鮮人民會主事로 勤務하며 管內同胞의 生活向上指導에 努力하다가 [illegible] 昭和[illegible]年에 局子街貿易株式[illegible] 支配人으로就[illegible]

間島敎育界恩人

功績이赫赫한 金永學氏

氏는咸北明川郡出身으로 三年間 私立成一中學校長으로 [illegible] 長으로서 同胞子弟의 敎育에 莫大한 貢獻이잇섯고 그後 [illegible] 努力하고잇는데 氏가 關係하고 [illegible] 間島의 人物로도 [illegible]

祝 間島省紹介版發行

間島省公署

延吉縣公署

琿春縣公署

和龍縣公署

汪淸縣公署

滿洲國專賣品酒精製造業 延吉魚菜市場直營
北滿產業株式會社
締取役社長 牛尾正一

延吉街公所

圖們街公所

琿春街公所

滿洲帝國協和會間島省本部

間島省龍井街 濟昌病院

間島儒林聯合會

滿洲炭礦株式會社 和龍調査班

延吉縣 裕庶村公所

延吉縣 石門村公所

延吉縣 鳳寧村公所

和龍縣 明新村公所

和龍縣 月晴村公所

和龍縣 德新村公所

汪淸縣 春陽村公所

延吉縣石門村 賈鳳山

延吉縣興佛寺 宇寶喜

和龍縣智新村公所

延吉縣興佛寺 張恭

長安村長 鄭殿邦

八道溝醫院 李允河

延吉街 金仁範

八道溝國民優級學校

依蘭溝 光興商會

依蘭溝醫院 李義鳳

和龍縣開山屯 羅河鍊

延吉街 鄭鳳降

間島省延吉街 司法代書 金秉哲事務所

間島省延吉街 德濟醫院

琿春街 琿興水利組合

間島省延吉縣延吉街 間島商事株式會社 取締役社長 玄大煥

間島自動車株式會社

間島省延吉街 協和殖產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屠肇榮 常務取締役 尹在浩

間島省 延吉同工公會

東滿林業株式會社

의鳥瞰圖

無盡藏의天然資源 開發은漸次本格化 農業은이곳서도大宗

本省은總戶數의 七割强이 農業에從事하므로 生産高에 農産物이 首位를占하엿스며 數年以來 當局은農家生活改善 農事合作社에서 農産物의 方法의 改良指導에全力을 傾注하고잇스므로 漸次原始的狀態에서 脫却되는現狀이다 山林과原野가大部分을占하고잇스나可耕地는 五四八、四三〇陌이고旣耕地는 三〇〇、三三一陌인즉可耕地에 對比하야 旣耕地가五五%이고四五%의未墾地가남어잇다 從來二三十年間無肥料로 原始的經營을하얏스나 朝鮮內에比하야 收穫率이優秀한데 晩近數年以來移民增加와當局의 指導로施肥하야良好한成績을보이고잇는데 農家別로보면地主四%地主로서 一部自作農八%自作農二四%自作兼小作農二二% 小作農四二%로地主가半數以上에達하며農産物中大豆가主要産物로서年産高八十萬石强이고 白米도年三萬石에達하야 自作自給에足한業士이다

林業과鑛業

本省의林野總面積은五二八、二六七陌으로 總面積의五割强을占하엿는데 鑛産物과共히 二大富源이다 琿春北部와汪淸東北部와 延吉西北部와 安圖와和龍의西部가 森林地帶로서 蓄積量 一億六千七百四萬八千石 開發量一億一千二百六十萬五千石인데 治安이安定됨에따라서 本格的採伐에着手하엿스며 人家附近의山頂은全部赤禿되엿스므로 植林事業에勵하야 風水의災害를防止하려고 綠化運動에邁進하고잇다 鑛産物은省內到處에 無盡藏으로 埋藏되여잇스므로 滿洲炭鑛株式會社 延吉出張所와 滿洲採金株式會社가 開發中이며 石炭、砂金、銅、石材、鉛、石灰 其他各區에 對하야 內鮮大會社及大財閥이着眼하게되여임의 出願件數가四七九件中二三五件이許可되여 本格的採掘中인데 成績이 良好하야 將來가 有望하다

囑望큰靑年科長
汪淸縣公署行政科長 金明完氏

氏는平壤出生 今年三十歲의靑年行政科長으로 囑望이큰바 일즉이 平壤高普를거처 昭和八年京城法學專門學校를卒業卽時滿洲國官吏養成所인大同學院에 入學하야 同第一部를卒業 吉林省屬官으로 延吉辦事處에勤務 其後間島省屬官으로 共同村制實施、民會及行政組織 一部改革에依한 民會及事務所設置 等重要公務를 擔當하야 康德四年一月(當時二十九歲) 汪淸縣參事官으로 同行政科長의 重任에잇는바 延吉驛前 和龍縣自衛團長 間島朝鮮人三行政科長으로 名聲이 높은바잇는데 將次氏의明敏한頭腦와 敏活한手腕은아므로 만흔期待를 갖게한다 (寫眞은 金明完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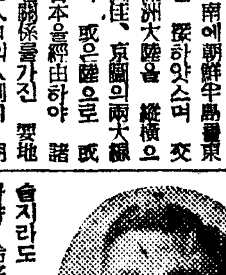
間島의鑛業王
三和物産株式會社長 高炳鎔氏

氏는慶南釜山出身으로大正十四年에來間하야 間島重要都市에서 公醫로 同胞의施療에從事하다가 昭和六年부터 同九年까지駐屯日本軍에從軍하야 軍人施療外에避難民施療에從事하다가 昭和十一年에方向을轉換하야 鑛業에着手하야 一躍大鑛業家로되엿다그리하야 三和物産株式會社를創立하야 社長에就任하야 特殊商業을特約하야 滿洲一手販賣權과同時에大同鑛業會社社長으로 間島各地의鑛業을 經營하는一方으로 本來英育事業에도 關心을두고잇든 氏는 朝陽川間島農業實習學校長으로 獻身的努力을하고잇슴으로 만흔稱頌을밧고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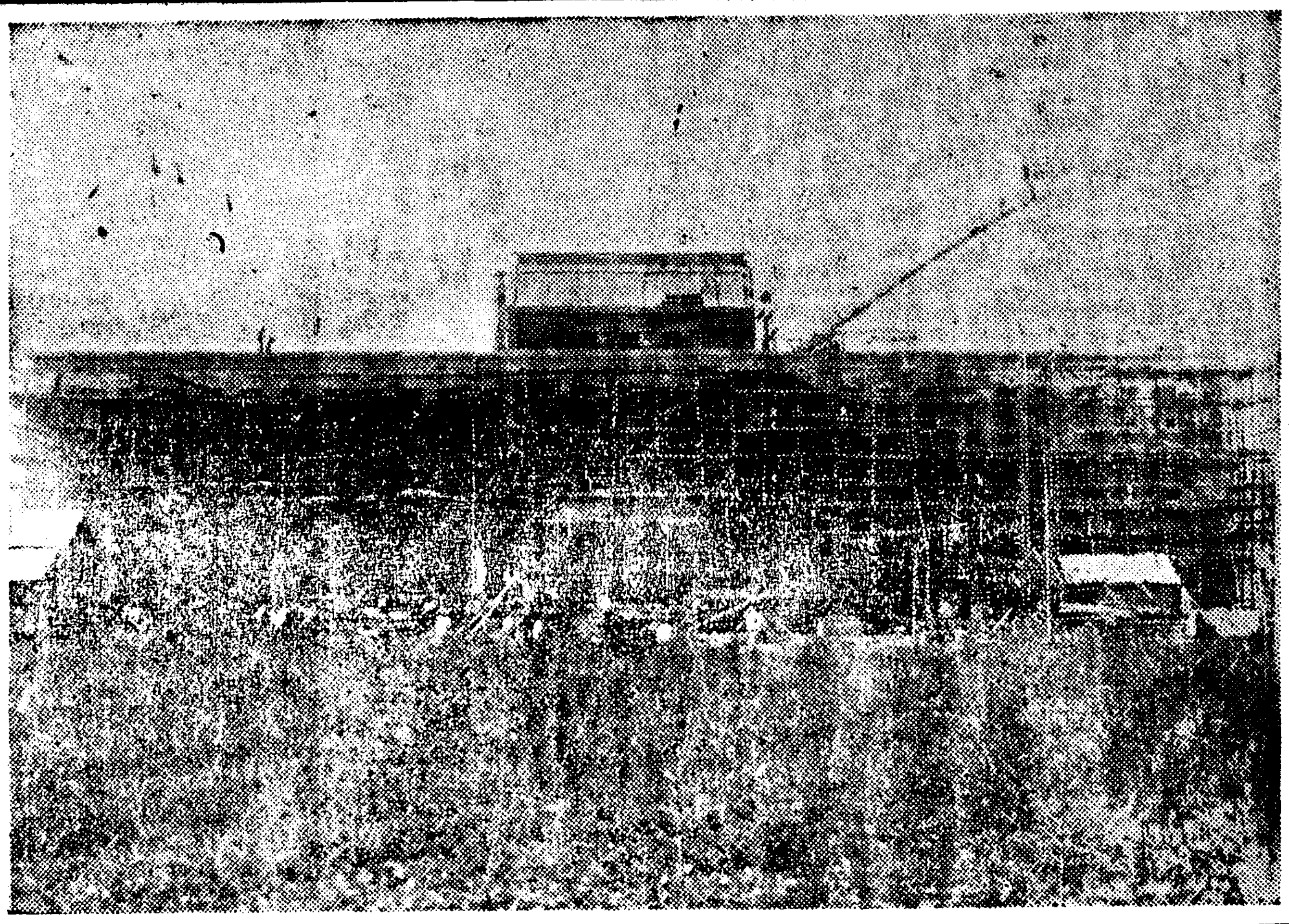
信望잇는村長、
太平村長 郭基亭氏

氏는江原道平康出身으로 일즉이 故鄕에서 公職에잇다가 來間하야 八道溝朝鮮人民會主事同副會長 太平鄕長等을歷任、現在村長으로잇서 全村 村民을爲하야 活動하고잇는데 氏의村民愛는 大端히 큰바잇서 一般의信望이놉다한다

凡百에垂範重責 特設部隊는萬丈生光
間島省長 李範益氏談



自紙間島紹介號를通하야 半島同胞諸位에게 이글을傳함을 衷心으로 欣快히생각한다 間島는 滿洲東南隅에位置하야 地理的으로는 南에朝鮮半島를 東에蘇聯沿海州를 接하얏스며 交通上으로는 滿洲大陸을 縱橫으로貫通하는 圖佳、京圖의兩大線이本省에會하야 或은陸으로 或은海洋으로 日本을經由하야 諸外國과 密接한關係를가진 要地이다 住民은全人口의八割이 朝鮮人이오 또開拓을苦待하는 農耕適地로 廣漠한沃野가 處處에잇서서 年年히 朝鮮人의農業移民實기는바 이미入植된 移民은 或個別로는 區區한事情이잇슬지라도 各其所定한곳에 定着하야 希望을明日에부치고 孜孜히勤勉하고잇다 今年에는 마침滿蘇國境의 張鼓峰事件이잇섯고 이에繼續하야 數十年來 未曾有의洪水로 省內에被害가不少하엿스나 진작適當한措置와對策을 베프럿고 또一般의同情에依하야 大事를免하얏슴은 不幸中多幸이다 滿洲國은 이미 周知하는바와가티 日滿一德一心民族協和下百度가日新日進하야 今日에는 日獨伊西諸邦과가든 先進諸國과 對等으로敦交를通하고 盟約하야 防共福祉의 一員으로 東方에서 雄視하고잇다 이中에잇서서 그住民의 大部分을 占한 間島는 民族協和運動上 凡百의 模範을示치아니치못할 重大한責務를 負荷하얏스며 더욱한가지 大書特筆할것은 最近에實施된 朝鮮人部隊의 特設이다 이는마치 朝鮮에잇서서의 志願兵制度와가티 純粹한 朝鮮人靑年으로 編成하는 部隊로서 國軍의一翼이되여 治安과 國防의重大한 責任을擔當하야 新興國家의 朝鮮系國民으로써 義務와 忠誠을 다함을 意味하는 創設인것이다 이는朝鮮人으로써 萬丈의 生光이며 이 一令이 한번 發布되자 全滿의 朝鮮人은 熱狂的으로 欣喜歡舞함을 마지아니하며 銃後의 援助를 自進擔當하기를 願하는이도잇다 在內同胞는 이모든點을 기피認識하고 만흔援助를 與하기를 懇望한다 特히 時局이 一層緊迫의度를 加하는今日 더욱自重自勵하고 一致團結하야 時艱克服에 邁進하기를 衷心으로 祈願하야 마지아니한다 (寫眞은 李範益省長)



◇…新築中인間島省公署…◇

醫療界의權威들

琿春代表的有志
琿春醫院長 李亨來氏

琿春에서 同胞의代表的人物을 찾는다면 누구나氏를몬저꼽으리 만치 氏의琿春에서의 存在는큰 바잇다하겟다 氏는咸北會寧出身으로大正十二年京城醫學專門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琿春에서 開業하엿는데 現在는琿春縣公署囑託醫 琿春朝鮮人民會長으로 多年間地方을爲하야 活動하엿스며 昭和九年부터는 琿春明新學校校長으로 被選敎育方面에도 盡瘁하는等 實로氏의公私生活은 多忙하바 仁慈醫院 氏는 一般貧民을 爲하야 無料治療를 베프는바 만흔데今回張鼓峰事件에 際하여도 該地方官憲工作을行하야 貢獻한 罹災民을 無料治療하는等 氏의犧牲的活動에는 누구나 感謝치안는이가 업다한다 氏와가튼有志가 間島에도 만히잇기를바라마지안는다 (寫眞은李亨來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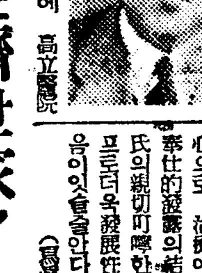
龍井의人氣者
龍井醫院長 洪黃龍氏

氏는平南安州出身으로 昭和九年에世專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後 龍井濟昌醫院에 在勤中 龍井의 人氣는 氏에게로 集中되엿섯는데 當年二十七歲의靑年醫學士로 溫厚篤實한 天性은 美貌와 아울러 同胞人氣集中 시키고잇스며 特히外科에 堪能한 技術은 龍井醫界의 一人者로서 今年六月에 龍井醫院을 開業한 以來充分한 設備에 過去의人氣는그대로 繼集中되여龍井刀圭界의 一位를 占領하고 잇는데그의 將來에 囑望하는바가 자못크다 (寫眞은洪黃龍氏)

産婦人科의權威
龍井同春醫院長 崔寬實氏

氏는 平北朔州郡出身으로 昭和二年에 世專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後 龍井濟昌病院에서 臨床에對한研究를 거듭한後 昭和七年에 同春醫院을 開業하엿는데 當年四十二歲의 壯年醫師로 特히 産婦人科에對한研究를 多年繼續한關係로 그야말로 百發百中이므로 斯界의 明星으로 定評이놉다한다 (寫眞은崔寬實氏)

延吉刀圭界名星
高立醫院長 高陽勳氏



氏는今年三十歲의靑年醫師로일즉이 會寧道立醫院에奉職하야臨床經驗을 研究하야 昭和十一年醫師試驗을 파스한 靑年醫師로 會寧道立醫院을 비롯하야 圖們共立醫院에서도 한동안治療하야 名聲을 날리엿는데 다시今年四月 延吉에 高立醫院을 開業하바 아직日淺함에도 不拘하고 벌서氏의名聲은 籍籍한바잇는데 이것은오로지 氏의誠心으로 治療에全力을 다해주는 奉仕的態度의結果라고 볼수잇다 氏의親切미쁜한社交와治術은 아프로더욱發展할것을 約束하고도남음이잇슬줄안다 (寫眞은 高陽勳氏)

親切한濟世家!
百草溝醫院長 金龍範氏

氏는 咸北鏡城出生으로距今二十二年前에來間하야 大正六年에 龍井에서醫院을開業하엿다가 同十一年에 百草溝로移轉한後 百草溝醫院을開業하고 領事分館及朝鮮人民會囑託醫로잇다가 現在는 汪淸縣公署醫로잇는데 氏는開業以來貧寒한同胞에게 無料施療하는 外에도 醫療機關이 不備한奧地의 數十里外라도 深夜를不拘하고往診하는 親切한醫로 遠近의稱頌이勿論이고 昭和十二年엔 朝鮮總督府의 感謝狀과駐滿大使館으로부터 表彰狀을바닷다한다

活人의定評잇는
延吉救世醫院長 朱昌濬氏

氏는咸北慶源出身으로 昭和十二年에 京城世專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元山救世病院에서 研究하야 同年十一月에 延吉에와서 救世醫院을 開業한바 年二十五歲의 靑年醫師로서 그의天性이 溫厚篤實 하야 深夜라도 患者請往診에는 辭讓하는때가 업스므로 그야말로 救世活人者에 孤言이업다는定評이嘖嘖한바에따라서 患者도日復日增加된다한다(寫眞은朱昌濬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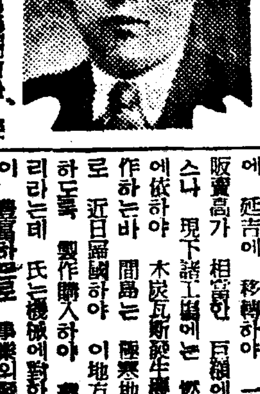
開山屯의一人者
仁濟醫院長 吳相伯氏

氏는咸北會寧出生으로 平壤醫學講習所를 卒業한後 六年間會寧道立醫院에서 勤務하며 臨床에對한研究를 하다가 昭和四年에開山屯에移住하야 仁濟醫院을開業하고 同五年엔 和龍縣公安局第五分局醫事 天寶山道會社 領事館開山屯分署 探金社開山屯鑛業所等의 囑託醫를兼하여왓는데 動勉忱著한氏는患者들의信賴가기퍼 地方의 歡迎을바드며 또한氏의治療는 適確하야 現在開山屯刀圭界의 一人者로 自他가共認하고잇다 (寫眞은吳相伯氏)

技術設備가兼全
平山齒科醫院長 李翰運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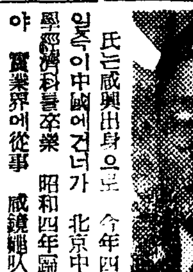
氏는平南平原出生으로 昭和五年에 日本大學齒科部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한 當年三十四歲의 少壯齒科醫學士로 平壤府에서開業하다가 同九年에 延吉에移住하야 平山齒科醫院을 開業하엿는데 技術과設備가 兼備함으로 齒科界의 數治과 아울러 조금도 遜色이업시 나타내고잇다한다

農機貿易界權威
日滿農機貿易社 趙成鎬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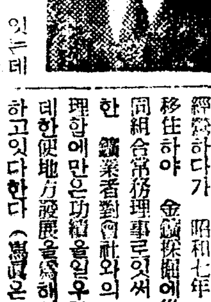
氏는京畿出身으로 原籍地에서 十年間面及郡農會에서 農事改良을 指導하다가 昭和十年에 安城邑에서 鋼成農機商會를 經營하다가 販路를 擴張하기爲하야 滿洲各地를 視察하던바 在滿同胞의 過半數가 五十餘萬이 在住하고잇는間島의 沃野開拓과 農事改良에는 반드시 農具의 必要를늣기고 昨年七月에 延吉에 移轉하야 一年間의 販賣高가 相當한 巨額에 達하얏스나 現下諸工場에는 燃料國策에依하야 木炭瓦斯發生機를 製作하는바 間島는 極寒地帶이므로 近日歸國하야 이地方에適合하도록 製作購入하야 普及시키리라는데 氏는機械에對한 智識이 豐富하므로 事業의發展은 勿論 普及方法이 功勞가間島農村에큰도움이 되리라한다 (寫眞은 趙成鎬氏)

庶民金融의中心
間島無盡株式會社專務取締役 金錫燁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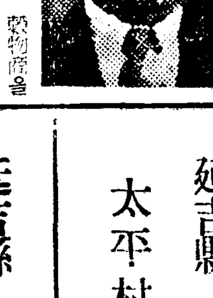
氏는咸興出身으로 今年四十歲 일즉이中國에건너가 北京中國大學經濟科를卒業 昭和四年歸鮮하야 實業界에從事 咸鏡鐵道株式會社其他三會社重役에就任 昭和九年間島無盡株式會社創立 同社專務取締役으로서 渡滿 間島庶民金融에 貢獻함이 큰바잇는데 同社는創立以來二百五十萬圓의 無盡契約高를올리엿스며 一般無盡業務外에 預金取扱도 倂行한다하는데 延吉本店을비롯하야 圖們 龍井 琿春三支店도活發한 活動을하고잇다한다 (寫眞 金錫燁氏)

眞實한宗教家
百草溝基督敎會牧師 愼光顯氏



氏는 京城出身으로 渡江한지 二十三年 일즉이 京城神學會를卒業하고 百草溝敎會牧師로 赴任하야 이地方의 主의牧者로 使命을다하고잇는바 特히氏는 敎育에對한 熱心이잇서 百草溝에 三光學校를設立 스스로 同校長에就任하야 傳道事業과함께 兒童敎育에도 크게 注力하고 잇는데 …

鑛業界의有志
八道溝金鑛同業組合常務理事 全翔龍氏



氏는 咸南北靑出身으로 일즉이 龍井에서 穀物商을經營하다가 昭和七年 八道溝에移住하야 金鑛探掘에從事 現在同組合常務理事로잇서 複雜多端한 鑛業者對會社와의 關係를處理함에만은功績을입으고잇는바 더한便地方發展을爲해서도만흔力을하고잇다한다 (寫眞은 全翔龍氏)

强柔가兼全한
間島省事務官 洪淳鳳氏

氏는 平南大同郡出身으로 平壤高普를卒業하고 大正八年 平南道巡査로 平壤署에勤務하다가巡査部長으로 大正十二年에 警部補에 任官되여 平南道警察部警務課、巡査敎習所敎官、龍岡署、新義州消防署司法主任을歷任하고 昭和六年에 警部로 昇進되여 楚山司法主任으로 複雜多端한 國境警察에 敏腕을發揮하엿스므로 同十年에 滿洲國에 招聘되여 濱江省屬官에 就任하얏다가 同四年에 間島省事務官으로 昇進되여 特務科特高股長으로 治外法權撤廢의 敏腕과强柔가 兼全한 (寫眞은 洪淳鳳氏)

理解기픈警務官
間島省警務廳長 袖岡靜太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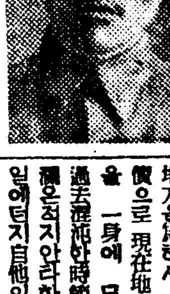
004066

氏는 岡山縣都窪郡出身으로 明治四十四年에 陸軍士官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卒業하고 步兵少尉에任命되여 步兵十六聯隊에 勤務하다가 大正二年에 朝鮮에 派遣되여 咸興守備隊에勤務하다가 同六年에憲兵中尉로昇進되여 金海憲兵隊長 同七年에光州憲兵隊長 同八年北滿齊齊哈爾憲兵分隊長 憲兵隊三島分隊長을歷任하고 同九年에 憲兵大尉에 昇進하고 同十五年에小倉憲兵分隊長 昭和四年에 憲兵少佐에 昇進되여 京城憲兵分隊長 同八年에 姬路憲兵隊長을 歷任하고 同九年에憲兵中佐로 昇進되여 仙臺憲兵隊長으로 榮轉하야 滿洲事變의 功勳으로 勳四等 正五位를받고 康德四年에 間島省警務廳長에 就任하얏는데 當年四十九歲로서 省內治安과國防의 重任에 當하고잇는바 特히朝鮮人에 對한理解가 기퍼 五十餘萬間島朝鮮人의 生命財産保護에 全力을하고잇다 (寫眞은 袖岡靜太氏)

奉仕的精神一貫
銅佛村長 姜秉禧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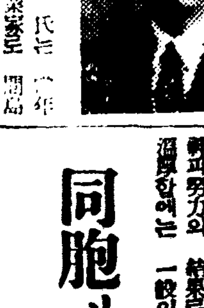
氏는咸北鏡城郡朱乙出身으로 當年四十五歲 大正元年 渡江하야 銅佛村에서 敎育事業에 獻身努力하여왓스며 甲長等을歷任 今年에現村長으로 努力하여왓스며 朝鮮人民會評議員 就任되엿는데 氏의溫厚謹嚴한其態度와 犧牲과奉仕的 精神으로 地方爲해서 活動하여온過去功績으로 現在地方民의 絕對的信望을 一身에 모흐고 잇는데特히 過去張鼓峰事件에 氏의活動은 적지안타한다 氏는 如何한 일에던지 自他의別이업시 奉仕的 精神으로 獻身하야 氏의 眞意味가 잇다하겟다 (寫眞은姜秉禧氏)

實踐力行의名廳長
間島省實業廳長 劉鴻洵氏



氏는 忠北忠州郡出身으로 大正十一年咸鏡南道高原郡守로赴任되여 咸南道의行政에 卓越한手腕을 發揮하엿스며 其後咸南道社會課長 同道産業課長 全北道産業課長을 歷任하고 多年間 産業行政에 對하야 만흔 活動을하엿는데 間島省新設에伴하야 實業科長으로 要望되여 就任하야 多年의 經驗을 基礎로 間島産業發展에 努力하여 오는데 昨年九月에 民政廳長에 任命 계속하야今年一月實業廳長에任命되여 全心全力을 다하야 活動하는바 氏의 溫厚篤實한 性格에는 누구나 感服지안는이가 업다 敏活한 手腕과 實踐力行하는 名廳長을 가진 間島産業界의 抱負를가지고 實踐力行하는 氏에게 對한期待는 적지아니하겟다 (寫眞은 劉鴻洵氏)

間島醸造界先驅
三山醸造所 吳弘燮氏



會委員을 歷任하고 今年에는 延吉産業株式會社를 創立하고 社長에 就任하야 있는데 氏는 일즉이本省地元山에서 醸造業에 從事하다가 來間하야 當年四十八歲의 壯年實業家로 그將來가 有望하다한다 (寫眞 吳弘燮氏)

同胞에理解기픈
和龍縣長 楊嗣驤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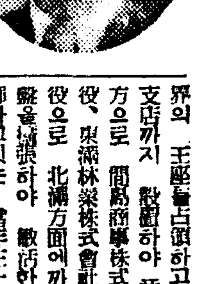
氏는 滿洲吉林省出生으로 奉天官立法政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야 吉林省公署科員 延吉道尹公署科長 延吉市政籌備處長、龍井商埠局長 延吉縣長等을 多年間歷任、康德四年十月和龍縣長으로 就任하엿는데 本來溫厚篤實한 氏는 縣民으로부터 至極한 信望과 仰慕를 받고잇으며 特히氏는 住民의 大多數가 朝鮮人인和龍縣長으로서 朝鮮人에 對한 理解도 기퍼 朝鮮人에 對한 好感을 갖게 되엿고 名縣長의 評判이 藉藉하다

氏는 … 咸北敎育界에 … 人敎育研究會를 創立하고 … 西伯利亞朝鮮人民會長으로 同胞子弟의 敎育에 努力하는 同時에 學校 設立하기爲하야 … 萬圓의寄附認可를 어더가지고 活動하다가 事情에依하야 成果를 나타내지못하고 다시延吉에도라와서 昭成中學校長으로 社會方面에서까지 非常한活躍을하던 間島敎育界의 原人으로 當年六十七歲인 初志一貫의 志士이다 (寫眞은 金永學氏)

社會敎化의恩人
間島省囑託 李相夏氏

氏는 咸北富寧郡出身으로 明治二十九年에 度支部技手로官界에 初步를 옮기어 그後九年間 朝鮮公立普通學校長으로 勤務하다가 昭和五年에 社會敎化擔任으로 江原道廳에 轉任하엿다가 同十年에 間島省囑託으로 招聘되여 今日까지 社會敎化事務를 擔任하고잇는一方 으로 協和會囑託、興亞道德會顧問、間島省儒林聯合會顧問、間島省社會事業聯合會主事 社會敎化와 思想善導에 … (寫眞은 李相夏氏)

實業界의重鎭
東滿林業株式會社專務取締役 姜金喆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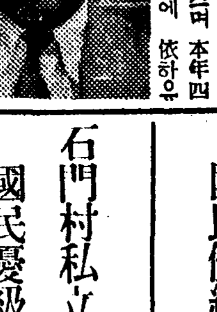


氏는咸北富寧出生으로 渡滿한지 以來 昭和四年부터 十二年까지 間島金融會理事 吉林、圖們、撫順金融會理事를 歷任하고 今春에 延吉에 移住하야 間島印刷株式會社를 創立 社長에 就任하야 間島印刷界의 王座를 占領하고 敎化에 活動하는 一方으로 間島商事株式會社 東滿林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으로 北滿方面에까지 事業地盤을 擴張하야 敏活한 手腕을 發揮하고잇는 當年三十六歲의 靑年實業家로서 公職으로는 延吉商工公會參事 延吉金融會評議員等으로잇서 縱橫으로 活動하는 바 그前途가 洋洋한것을 期待되여 만흔 企待를 갖고잇다한다 (寫眞은 姜金喆氏)

八道溝의有志
李永根氏

氏는 江原道平康出身으로 大正五年 京城五星學校卒業 일즉이 渡江하야 在住同胞爲해 努力한바 만흐며 昭和二年八道溝朝鮮人民會長에 就任以來 十年을 하루가티 活動하엿는데 在住同胞 三萬三千八百名에 達하야 同胞 社會敎化에 偉大한 功勞를 남기 新爲人이다 (寫眞은李永根氏)

朝鮮人敎育恩人
恩眞國民高等學校長 富禮壽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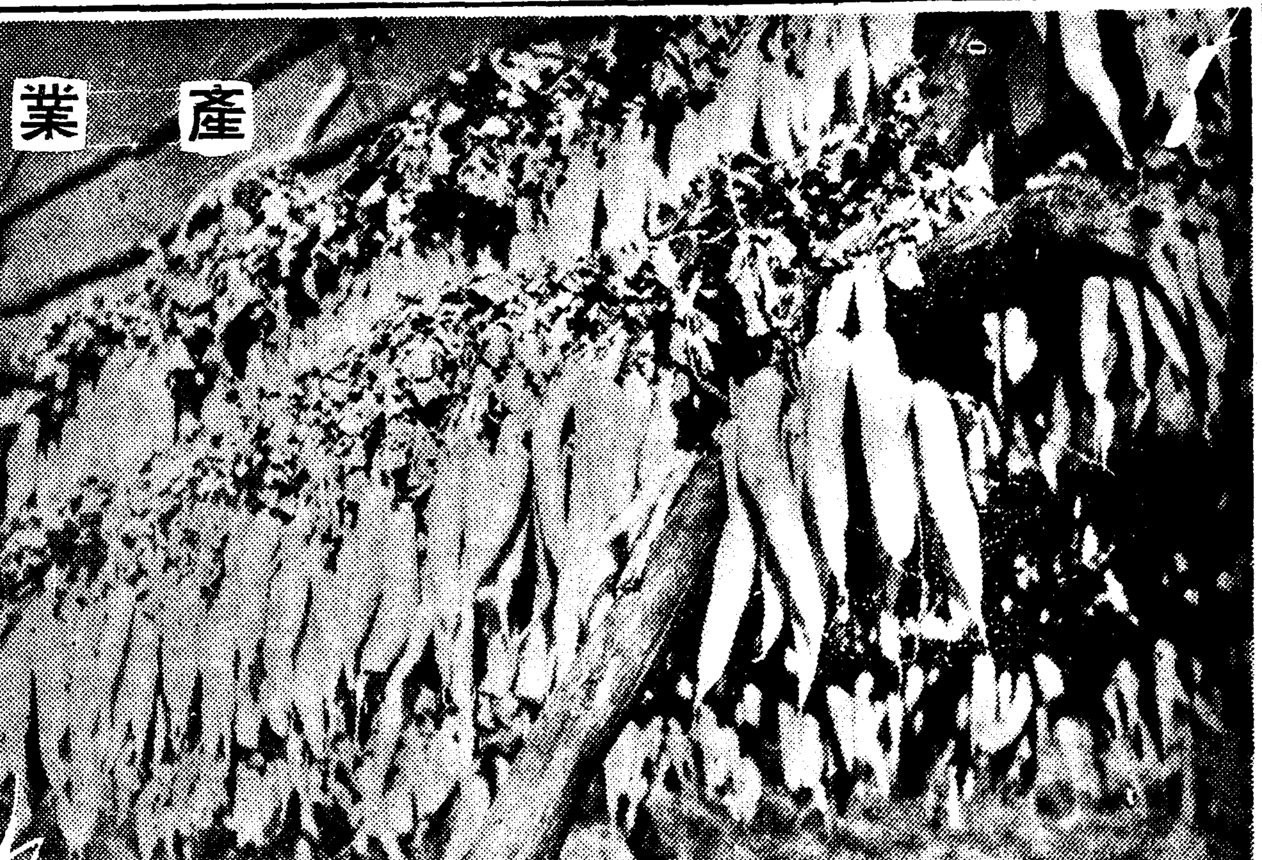


龍井三私立中學의 一인 恩眞中學校는 加奈陀聯合敎會의 經營으로 校長富禮壽氏는 加奈陀出身으로 當年四十二歲 加奈陀 쓰大學을卒業 昭和二年 外國敎師로서 渡鮮、昭和四年八月恩眞中學校長으로 就任 渡來以來 朝鮮人中等敎育을 爲하야 獻身努力하여오든 人物인바 同校는 創立 大正九年一月四日 職員數 十六名 學生數 四百名으로 現在基本財産二〇萬圓을 擁하야 經營上堅固한基礎를 일우엇스며 本年四月滿洲國新敎育令實施에 依하야 現在校名으로 變更 完備한中等校로되엿다 (寫眞은 富禮壽氏)

延吉警察廳 / 延吉國立醫院 / 龍井街 三和物産株式會社 / 朝陽川 私立朝陽川農業學校 / 延吉街私立海星國民優級學校 / 明月溝私立海星國民優級學校 / 石門村私立海星國民優級學校 / 延吉縣 長安村公所 / 延吉縣 頭道村公所 / 延吉縣 平安村公所 / 延吉縣 太平村公所 / 延吉縣 華蘭村公所 / 延吉縣 朝陽村公所 / 延吉縣 錫麟村公所 / 延吉縣 西城村公所

汪淸縣 春明村公所 / 汪淸縣 春華村公所 / 汪淸縣 春和村公所 / 汪淸縣 春融村公所 / 汪淸縣公醫 吳學駿 / 汪淸縣三岔口 張仙鳳 / 頭道溝協和醫院 延吉縣囑託醫 崔松林 / 八道溝市溝海醫院 曺成國 / 和龍縣福民診療所 金宗鉉 / 三道溝養正醫院 和龍縣囑託醫師 金宣宇 / 在琿春日本領事分館 / 滿洲帝國協和會琿春縣本部 / 延吉郵政局 / 延吉專賣署 / 延吉 長田靖 / 株式會社 東興銀行 / 杉山政次郎 / 延吉縣太平村 海星國民優級學校 / 八道溝金鑛同業組合 / 延吉縣銅佛寺 銅昌商會 / 三道溝市 嚴柱桓 / 延吉縣銅佛寺 協成商會 / 八道溝市 韓國甫 / 和龍縣三道溝 辛鳳林 / 延吉縣頭道溝 聚盛湧 / 延吉縣平安村東盛屯 東盛湧燒鍋 / 延吉老頭溝 東盛泉燒鍋

間島穀物株式會社 / 間島林業株式會社 / 延邊晨報社 / 間島省延吉街 間島商會 / 延吉電業株式會社 / 間島印刷株式會社 / 圖們金融會 / 琿春金融會 / 汪淸金融會 / 三道溝金融會 / 明月溝金融會 / 老頭溝金融會 / 延吉金融會 / 開山屯金融會 / 延吉縣 慶和村公所 / 和龍縣 光開村公所 / 延吉縣 太陽村公所 / 延吉縣 明月村公所 / 和龍縣德新村長 金龍雲 / 延吉縣西城村長 韓龍洙 / 頭道村公所 村長 張栢齡 / 延吉縣明月村公所 村長 孫吉蘭 / 間島老頭溝同仁醫院 金敎貞 / 間島無盡株式會社 / 圖們支店 支配人 文錫燮 / 龍井支店 支配人 金鎭憲 / 間島省延吉街 延吉産業株式會社 / 滿洲殖産株式會社 / 延吉出張所



新品種移出地는 東京、大阪名古屋의 三都로 決定

慶北各郡과 穀協이 出荷統制

【慶北支社發】産米改良增殖政策의 實現으로서 慶北道에서는 米의 品種改善에 邁進하야 十三年度부터 本格化하야 新奬勵品種 日進、豊玉의 二種을 作付한 結果 本年度收穫豫想은 兩種으로 六十萬石이란 作付面積에 比하야는 豊作이라한다 其中에 五十萬石을 內地移出하기로 決定코 移出에 關하야서는 萬全을 期한 結果 出荷統制를 하야서 新奬勵品種의 聲價發揚을 期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新品種出荷統制仕向地는 二日 東京、名古屋、大阪의 三地의 決定을 보게되엿스므로 道當局에서는 統制의 萬全을 期코저 二日附로 郡과 地方穀物協會間에 協議하야 完全策을 期하고저 通牒을 發하엿다

豐川農作物 向上을 企圖

【豐川】黃海道 豐川地方에서는 農事改良으로 因하야 年年生産高의 激增과 品質이 向上되여 가는데 當地穀物檢査所에서 昭和十二年十月부터 今年十月末日까지 豊川等地에서 産出한 正租 大豆 小麥 小豆의 受檢數量을 보건대 正租五萬五百叺 大豆一萬四千叺 小麥七萬叺 小豆一千七叺에 達하엿는데 前記受檢物은 全部鎭南浦方面으로 輸出되엿는바 第一多量生産品인 小麥의 品質도 漸次向上되거니와 아프로는 大豆生産에잇서서 在來種인 兩期節이란種子를 栽培하는關係로 地方에서는 消費되나 이것을 輸出치못하고 長湍豆를 栽培하는農家가 減少하므로 一年生産高가 겨우 一千乃至二千叺에 不過하며 또田作에잇서서는 綠豆、大豆、小豆等을 混作하야 種別的品質向上으로보아 農家의 損害가 不少하다하며 斷然 混作慣習을 廢止하고 一種作을 實施케하는同時에 長湍豆를宣傳하야 小麥生産高와 並等收穫을得케하려고 穀檢當局에서는 大大的으로 生産農家와 穀物業者에게 奬勵中이며 兩期節(在來種)豆로因한 地方的損害를 力說하고잇다

이 만흠으로 그의發展이 豫想된다고한다

慶北棉花共販 一千萬斤을突破

【慶北支社發】二日現在의 慶北棉花共販은 時局의 重大와 棉花의 重要性에 一般農家는 理解됨에따라 自家用을 節約하야 共販高는 一千萬斤을 突破하엿다는데 前年同期의 七百四十六萬五千斤에 比하면 實로 二百五十三萬斤의 增加를 示하엿다한다

煙草麥間作은 品質不良招來

專賣局劃期的施設에 支障

【海安】專賣局에서는 國策에 順應하야 劃期的施設로 煙草耕作의 麥間作을 明年度부터 實施할 豫定으로 忠北線海安驛前에잇는 當組合耕作者에 奬勵하야 八個面 耕作者 十五名에게 六町步로三石의 種子를 配付하야 試作을 實行하고잇스나 一般耕作者들은 麥間作關係로 結局은 煙草收穫이 늣게된다한다 그러므로 品質이 良好한 煙草를 收穫치못하므로 利益이 업게되리라하야 好意를 表치안는 狀態에 잇다고한다

小賣商店簿記講習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小賣商業의 自主的振興策으로서 小賣商業의 合理的經營의 資料로하고저 十一月十四日부터 十八日까지 左記要項에 依하야 第十二回小賣商店簿記講習會를 開催키로되엿다한다

主催 京城商工會議所
日時 十一月十四日부터 十八日까지 五日間每日午後七時부터 同十時까지
會場 京城商工會議所第二會議室

新米移出遲延

正租價騰貴가 原因

【木浦】新米의 出廻期에 入하야 朝鮮米輸送需線도 俄然緊張色을 보이고잇스나 例年十月初旬부터 出廻하든 新米는 今年은 左記의 事情으로 約廿日間이나 遲延되여 內地移出과 가는것은 아즉 全無한 狀態로 會社方面에서는 閑散하다한다

一、正租의 共販化로 價格이 顯著히 騰貴하야 湖南線方面에는 十錢二厘란 高價에까지 至하엿고
一、貨車配車가 不圓滑하야 支障을 招來케한것
一、地場賣가 增加한것

羅州名産葡萄로 葡萄酒를釀造

【榮山浦】羅州地方에서 生産하는 葡萄는 年産千餘萬貫에 達하나 販路는 겨우 光州、木浦等 近處에서는 七萬貫밧게 消費되지아니하야 남어三萬貫은 外地로 販路를獲得中이나 荷造費其他를除하면 生産費도 되지아니하는形便이며 現市勢 一貫五六十錢에 不過하는 低價이므로 生産者側에서는 損害를 보는中이다 이에對하야 全南道當局에서는 여러가지로 研究하든 結果 光州稅務監督局 鑑定課에 依賴하야 葡萄酒를 釀造할 企圖를 세우고 只今 試驗中에 잇다는데 明春 四月頃에는 그 良否를 確定하게될터이므로 萬若 그成績만 조흐면 將次 羅州의 名産葡萄酒가 釀造되여 그의聲價를 올릴것이며 販路에도 苦痛을 免하게될터이니 一擧兩得의 利益을 볼것이다 따라서羅州地方에는 葡萄栽培에 適當하야 …

北支經濟最近의 動向 ③

그리고 物資不足及物價高에 對하야서는

(一)軍特務部、臨時政府를中心으로 協議한結果 八月廿四日 地方經濟委員會를 北京、天津 石家莊等 主要都市에 設置하야 雜穀、麥粉、砂糖、石炭 燐寸、綿絲布、肥料等 生活必需品의 交易、斡旋을 行하다

(二)最高公定價格을 設定한다

(三)物資의 南方移出을 阻止하는等의 方策을 講究하고잇다 石炭에 對하야는 北京에서는 興中公司가 産地別公定價格을 發表하고 販賣區域을 指定하고잇는데 이는 名目뿐으로 品은切되는 境遇가 적지안타

地方

다음에 圓圈內의 輸出制限에 對하야서는 먼저 日本商工會議所가 要望建議한바와가티 內地滿支産原料에 依한 輸出品의 制限을 緩和하야 다시 輸出品과 링크하야 支那産原料를 輸入할것이라는 意見은 北京天津의 商工業者도 同樣의 意見을 表하고 잇서 무엇보다도 먼저 輸出制限緩和에 依하야 制限品의 綿絲布、毛製品、고무製品等 生活必需의 物資의 豊富한入手를 待望하고잇다 또 一面日本商品의 輸出增進에 關하야서는 빠라ー서스텔、商品個個의 研究調査或은 必要地移輸出의 方法研究等도 要하야 圓圈內의 끼ー부앤드테이크를 圓滑케하지안허서는 아니된다 最後에 北支金融工作과 關聯하야 北支國際收支의 基礎를 强化하야 開發工作을 促進할 輸出入 링크制의 內容은

링크

輸出物資로서는 落花生、落花生油 棉花、豚毛、卵及同製品、葉煙草 羊毛의 農業特産品으로 輸出能力當分年額 七億六千萬元이라고 豫想하야 이것과 引換하야 輸入되는 物資는 建設資材 生活必需品을 中心으로 하는것으로 九月十九日열린 日華經濟協議會에서 「中國聯銀에 外國爲替基金을 設定하고 第三國産資材의 輸入을 北支物産의 輸出에링크케한다」는것을 決定하고 十月五日其具體方法을 中國聯銀으로부터 發表하얏다 同聯表에 依하면 露先·賣書 … 基金約六百萬元을 日支兩國民으로勿論 第三國人에도 開放利用케하고 正金(將來는 鮮銀도 加入)으로 하여금 運用에 當케하며 個人링크制를 原則으로 一志二斤에 依한것이다 相對國은 主로 米國獨逸에 依하는것이라고 觀測된다 (引用指數는 支那問題研究所調査)

金融

經濟建設의 尺度인 通貨工作의 進捗程度는 占據地域內에잇서서 經濟建設의 尺度라고해도 過言이아니다 中支에서는 新幣制의 問題가 混沌되여 目標가 서지를안흐나 蔣政權의 背後的援助에 依하야 法幣는 價格低落에 不拘하고 執拗한抵抗을 繼續하고잇스며 北支에서는 舊法幣와 新國幣인 聯銀券의 鬪爭이 展開되여 勢力關係決定에 까지 進出되엿스나 一步一步前進가보면 昨年十月占據와 同時에 모다드리옴에 始作되는 金融工作을 開始하야 年內에 蒙疆銀行을 設立하야 急速히 幣制를 統一하기에 着手하엿다 爲替操作이나 産業資金의 貸出이나 擔速主義에 依하야 무엇보다도 먼저 民心의 宣撫에 努力하엿다 이三地域의 差違되는 金融通化工作은 經濟建設의 實相을 反映하고잇다 蒙疆에서는 資源開發이 第一進步되엿고 中支에서는 電氣、水道、交通等의 公共事業의 復舊에 먼저 着手치안흐면 안되게되엿다

北支

北支는 重要한 基點이되여잇스면서도 漸進的開發計畫은 數次修正되여 經濟建設의 步調를 맞게된것과 가티 金融工作도 數次修正、調整되면서 前進하고잇다 中國聯合準備銀行의 誕生까지에는 北支幣 … 나 許多한 經緯가잇섯다 朝銀노ー트의 增發、河北省銀行券의 增發의 二案은 모두 이로因하야 舊法幣의 回收를 企圖하라는데잇섯스나 結局北支新政權下의「銀行의 銀行」인 中央銀行을 新設하고 新紙幣를 發行하야 舊法幣를 回收하자는 第三案으로 落着되엿다 이것은 對內的으로 對支政策遂行의 方向을 示唆한것이엇고 對外的으로는 圓圈의 스타ー링 블럭에의 挑戰을 意味한것이엿다 그리하야 北支에 잇서서 中國聯合準備銀行은 貨幣制度의 確立과 日、滿、支經濟圈形成의 金融的基礎의 確立을 目標로 誕生한것이다 新國幣인聯合準備券을 發行하야 舊通貨를 整理하야 通貨의 一元化를 企圖하고 國幣를 日本에 「파ー」로 링크하므로서 日、滿、支通貨의 通貨圈을 形成하야 維持하랴는 것이다

朝鮮米生産費 調査協議

穀物檢査所에서는 四日午前十時부터 倭城臺本所에서 朝鮮米生産費調査事務協議會를 開催하엿는바 山本所長以下各支所監督官十數名 出席下에 生産費調査의 正確을 期키爲하야 各支所間의 調査方法統一과 其改善等에 對하야 여러가지協議를 行한바잇섯다한다

新泰仁金組率先 正租共販斡旋

一斤當九錢九厘

【新泰仁】全北井邑郡新泰仁金融組合에서는 지난二十三日朴星根理事主管下에 千百五十三叺을第一回로 共販하엿는바 競爭入札者는 郡山 金堤新泰仁等十五名이엿는데 銀坊主二等品一叺 九圓三錢七厘 每斤에 九錢九厘의 高價라한다

新義州高商講座

講師 京城高商敎授山口武夫先生
敎材 聽講者에게進呈
聽講料 無料
聽講者數 先着申込八十名限
申込期日 十一月十日까지
申込處所 京城商工會議所業務課

企業化에 到達한 鐵代用「高力陶器」

凡百의 代用品凌駕

鐵代用 ❶

國策資材로서 第一重要한 鐵의 使用을 節約하기 爲하야 四月二十五日에 發表된「鐵鋼製品製造制限令」에 依하면 文鎭外 四十七品目의 制限이 指定되엿는데 六月二十八日에 이르러서 다시금「샹데리아、스토ー브」暖爐、鐵甁等外의 三十四品目의 製造禁止가 追加되엿다 또 鐵의 購買券制에 依하야 鋼材의 使用制限令이 發布되는等 鐵의 戰時使用以外에는 全部禁止하는 鐵의 原則이 徹底的으로 斷行되여 一般國民需要는 一律로 杜絶되고 家庭日用品卽生活 … 그리므로 … 鐵의 … 밧고잇는 … 平和産業及 都市의 文化施設의 擴張中에 엇는것이나 增設或은 新設은 不問하고 鐵의 使用은 極限되엿는데 어로因하야 節約되는鐵의 大部分은 兵器製造에 或은 最近實施된 鐵의 輸出入링크制下 鐵의 消費分量은 過大하엿든 … 話로서 [illegible] 實이다。昨年以來 … 노 … 鐵의 … 時流에便乘하야 … 은 … 郵便局、陶器의 … 의 發明品이 … 하게되엿다 … 東北一角에서 … 其中에도 … 三 … 陶器 … 「多大 … 力 … 입니다 … [illegible]

精米機圓筒 需要를調査

朝鮮農會에서는 精米機의 圓筒及 롤도鐵材의 制限에依하야 價格이 昂騰할뿐아니라 漸次品薄을招來하고잇스므로 農林局指定機인 洒水式精米機、내쇼날精米機의圓筒及롤의 斡旋豫測數量의 調査를 各道及穀物協會에 通知手配하얏다한다

朝鮮酒類品評會 大成燒酒入賞!

【舍人】平南道順川酒造組合管內에서는 今般京城서開催되엿든第七回全朝鮮酒類品評會에 出品되엿는바 其中舍人特産의「大成燒酒」가 一等入賞한것을 비롯하야 江界의「太白」等 三點이 入賞하엿고 入選品이二點이엿다고한다

平安北道가率先하야 米倉을道營으로移管

【新義州】事業運用의圓滑、財政的條件의 確立、擔任議員의 刷新의三大目標를 實現하기爲하야 平北道에서는 全朝鮮에 率先하야 郡農會經營의 移管을하려는 計畫을 세우고잇섯는데 요지음 諸般準備의 完了를 보게되야 十一日드디여 移管이實現되엿다 따라前記米倉은 博川、龍川、定州、鐵山、四個郡 七個所에잇서 過去米穀統制에 큰役割을하야 왓다 今後道農會에 統制되야 其機能은 倍加되야 時局對應의 一線에 適宜한것으로 一般은 期待하는바이라한다

朝鮮의 集荷屑銅 日本故銅會社에 賣却?

內地屑銅은 不遠正式決定을볼 日本故銅統制會社指定商의 選定에依하야 今月中旬까지에는 集荷開始가豫測되는데 朝鮮屑銅의 統制는 總督府의 獨自的見解下에 一個의統制會社를 設立하고 이에當하거로 大體의方針을決定한모양인데 統制에依한 集荷屑銅은 內地故銅統制會社에 賣渡할모양이다 卽 朝鮮의銅은 家庭器具로서 普及되여잇서 廢品도 相當數에 達할모양으로 電線屑銅도 若干이잇는 朝鮮屑銅統制會社의 集荷屑銅을 處理하는 再生業者는 今日에잇서서는 皆無의 現狀이다 따라서集荷銅은 內地統制會社에 賣渡하던가 或은 內地再生業者에 委託再生시키는가의 二方法뿐으로 現在는 朝鮮의電氣銅統制도行하고잇는것을보아도 結局內地統制會社에 販賣되지안흘가觀測된다고한다

內地統制組合에는 加盟치안는다

朝鮮의 銅生産高는 當局의 金增産策과 相依하야 逐年增加하는 傾向에잇는데 朝鮮電氣銅의 統制에 關하야서는 아직 其實施의 運行에 이르지안어 最近의 電氣銅內地流入과함께 銅메이커의 內地統制組合에의 加入은 相當히 問題視되게되엿는데 急速한 日本銅統制組合에의 加入은 行치 안흘모양이다 卽 朝鮮의銅은 大概는 銅塊로서 電氣銅을 製鍊하는곳은朝鮮製鍊會社 一社뿐으로 同産額은 約百噸가량의 生産高를 示하고 잇는바 現在銅의 消費狀況은不足狀態로 總督府의 取締如何에 依하야서는 內地統制組合에加入을命할 必要는업스므로 現狀이 繼續하는限 朝鮮銅메이커ー의統制組合에의 加入은 업슬모양이다 日本銅統制組合에서는 右現狀에鑑하야 目下는 朝鮮메이커ー의 組合加入慫慂은 全然行하지안코 또 業者로서도 組合加入意思는 表치안코 잇는모양이다

和順郡適期刈取 刈稻小束立乾督勵

【綾州】全南和順郡農會에서는 朝鮮米의 聲價回復과 産米改良의 徹底强化를 爲하야 去十五日부터(朴郡守)以下全職員이 總動員하야 積極的 適期刈取 小束立乾等을 徹底的으로 督勵코저 擔當區域을定하야 督勵하엿다는데 매우良好한 成果를 어덧다고한다

工業質疑

煉炭製造

【問】煉炭製造에要하는 一般材料와 其販賣所

【答】無煙炭、木炭、骸炭等의無煙燃料의粉末에 石灰、粘土、角叉、糖蜜布海苔等의 結合劑를加하야 一定한形으로 壓縮하면되는데 其販賣는 各其專門都賣商에 直接問議하십시오

化學工業藥品

【問】化學工業藥品販賣店

【答】京城化學工業所 京城府鍾路一丁目四二 岡野商店 同新設町三四七 帝國酸素株式會社京城支店 同本町四五五

鞣皮法

【問】魚皮를 簡單히 鞣革하는 方法

【答】그것은 技術的으로 錯雜한것이므로 簡單히 말할수업사오니 朝鮮皮革株式會社(京城堂山町三丁目二二)로 直接問議해보십시오

모메조産

羽毛의用途

輸入防遏의國策에 依하야 代用品資源의 開發은 銃後國民이 직혀야할戰線의 하나로서 幾多의發明考案이續續現出하고잇는데 羽毛도 二三養鷄家가 細心한注意로 處理를하면 羽毛는 훌륭한綿의代用이되는것이다 現在養鷄家는 羽毛를 採取하는것을 귀찬케생각하고 鷄糞과共히肥料로서버리고 돌보지안는데 肥料로서 施肥하드래도 벨려야 三年後가아니면肥効를 나타낼수업는것이므로 이에關心을두고잇採取하면 百羽가량 飼養하는 養鷄家이면 不知不識間에 二三貫가량은 모을수잇는것이다 이대로 팔면一貫에 一三十錢가량을 바들수잇는것이고 또 이것을 精製하면 雜色으로 一二三圓內白으로 五六圓이며 羊毛와 棉花의 輸入制限으로 最近은 더욱重要視하고잇는 利用方面은 방석속을비롯하 一枚에 三百五十匁綿에는 五百匁程度이고 또防寒用被服材料로서는 保溫과輕快한 點으로보아 가장適當한것이므로 爲替管理의 强化에依하야 國內의綿을 使用할수업게되엿스며 羊毛의 輸入이 不能하게된 이때에 그代用品으로서의 價値는 자못 重要視되여잇다

商品市勢

七日

▲果實類: 早生赤 三貫五入 / 明月 / 蜜柑(早生)半箱入 (鎭南浦) / 紅玉 (大邱) / 바나나臺灣十貫色付 / 葡萄(간)內地 / 同 (마스캇)岡山 / 梨 (二十世紀)內地 / 國光 (大邱) / 〃 (鎭南浦) — 價格 [illegible]

▲海産物: 乾明太新(元山一駄) / 〃 (西湖津) / 〃 (退潮) / 〃 (前津) / 北海道乾明太 / 〃 小明太 / 〃 (猿面) / 〃 (若目) / 乾大口(元山)百斤 / 〃 (北海道)百斤 / 乾民魚(암치)大一手 / 〃 中 / 〃 小 / 烏賊魚百斤 / 鹽蝦(새우젓) 一甕 / 生明太新入荷壹級 上品 / 生蟹雌 百尾 / 生蟹雄 百尾 / 生民魚 大、中、小 / 鹽古同魚上品 / 新入荷生刀魚大百尾 / 新入荷新生大口一箱 / 明太子新入荷上品一桶 / 明太子(咸南産) / 〃 / 〃 — 價格 [illegible]

▲菜蔬: 松茸 百匁 / 白菜十貫入 / 玉葱十貫入 / 白菜 / 土蓮根 / 甘藷 / 馬鈴薯 / 玉菜 / 胡蘿石油箱 / 長大根 — (京城府農會社) 價格 [illegible]

▲家畜飼料: 粉末配合鷄用(十二五斤一號) / 同 / 同 / 産卵鷄用 / 同 中雛用 / 同 三種配合粉餌 / 同 二四種配合粒餌 / 成鷄用 / 同 / 同 三種配合粒餌 / 雛用二種配合粒餌 / 玉蜀黍 / 同 / 同 / 高粱 / 同 / 玄米 / 精麥 / 大麥 / 小麥 / 砂糖 / 無 … — 價格 [illegible]

▲農産加工品: 麥粉(黃田島第四號朝鮮産) / 盛木(眞田) / 杞柳朝鮮産 / 菁草朝鮮産 / 漆 / 桐内地 / 椎茸内地 / 楮 / 乾蕨(白皮) / 〃(黑皮) / 乾栗朝鮮産 / 在子油 / 胡麻油 / 蓖麻子油 / 棉實油 / 白絞油 / 乾蕨根 — 價格 [illegible]

▲穀用叺及繩: 指定價 京畿 / 忠北 / 忠南 / 慶北 / 慶南 / 全南 / 全北 / 京畿(十五升) / 穀用叺(玄米) / 帝綱 — 價格 [illegible]

▲農藝藥品: 砒酸鉛 / 改良砒酸 / 除虫菊 / 硫酸 / 結晶石灰 / 粉末 / 生石灰 / 硫酸 / 상게이粉狀데리스 / 驅虫用價草粉 / 쿠레오소ー트 / 骨粉 / 魚粉 / 가기가스 / 히버스 / 干鰯 / 三菱完全 / 配合中雛用 / 成鷄用 — 價格 [illegible]

▲肥料: 石灰窒素(九月各務驛) / 硫安(九十同) / 燐酸加里 / 過石(一五%) / 硫酸아므니나 / 安東豆粕 / 豊年大豆粕 / 胡麻油粕 / 硫化燐安 / 加里 / 過燐酸 / 安燐加(現物軌道渡) / 地和化成肥料(現物渡) — 價格 [illegible]

▲家畜類: 鷄卵 / 生鷄 / 生兎 / 生豚 / 蜜 / 四季鳥卵 / 豚毛(原毛) / 同 (撰毛) / 雛 / 羽毛 — (朝鮮副業協會) 價格 [illegible]

療養實話

再度의肺尖가다루를療養하고

(山口縣柳井町) 內村精三

나는 昨年八月中旬頃 조곰 無理해서일을한때문인지 身體는 느른하고 食慾은不進하게되므로 內科博士의 診察을바닷더바 意外에도 肺尖가다루라고하야 대단히 놀낫습니다 그때 언듯 以前食慾增進에『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고 非常히 好結果를 본일이생각키여서 當町藥店에 買入服用햇습니다 그런대 服用하는 中에반가운일로는食慾이늘고 三十八度쯤이던 熱이平熱이되고 눈에도이게 살이찌기始作햇습니다 그런대 이에安心하고 無理를햇든것이 나빳든지 再次病臥하는몸이되고 마럿습니다 이번은 처음부터『錠劑わかもと』를 信賴하고 九個月以內에는 全快할自信을가지고 服用햇슨대 이번은 再發한때문이지 期待한바와가티 그리 速하지못하야 結局 九個月餘를 病床에서 지내게 되엿습니다 그러나 그뒤로 조케되야 約一個月 保養햇더니 元氣가 나게되고 本月中旬頃부터 出勤하고 엿습니다 지금은 別異常이 업스므로 이번은 再發치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愛國公債進呈 大特賣
錠劑わかもと
買求時마다大額當問題附等外賞品呈 應募正解者에抽籤으로
一等愛國公債廿五圓券一枚식百本、二等拾圓券一枚식五百本、其他五等까지 賞品多大
銃後の務 愛國公債

結核療養에 多食榮養療法의提唱

사나토리움療法의始祖가 主唱한急速體重增加의方法

結核의療養에는 여러가지方法이 잇스나 그中에서도가장 確實한것은 사나토리움療養中의 食餌療法입니다 이것은사나토리움療法의 始祖푸렘ー메르及 데도와 이렐兩氏가主唱하야 學界를놀라게한 療法으로서 今日의結核患者의 食餌療法의基礎가된것입니다 이療法은 多食肥胖시켜서 衰弱해잇는體力으로 恢復充實시키고 抗病力을强하게하야 病을征服하려는方法으로서 結核은 自然治癒力에依하야곳친다ーー는今日의學說에잇서서는 이方法이 가장根本的인確實한療法이라고하지안으면 안됩니다 今日臨床家의間에 行하고잇는 方法은 三時間마다 一日六回(午前六時、九時、正午、午後三時、六時、九時頃)食합니다 그調理도例를들면 患者는 朝六時에 牛乳二百그람 九時에밥세공기 鷄卵한個、野菜、肝油五一〇그람 正午에肉類百그람 野菜米飯三椀、鷄卵一個、肝油五그람、三時에 牛乳二百그람 빵한조각(或은 코히에菓子)六時는大體晝食과갓고 九時는午後三時와同程度의調理로 一日의總카로리ー約 三千카로리ー以上을攝取하도록 합니다

食餌療法을實行

이러한 食餌療法을實行하고 安靜하고잇스면 一週間에 二三百匁、一個月에 五百匁로부터 七八百匁의 體重增加는 容易합니다 이와가티 體力이充實해오면 執拗한 微熱도내리고 其他의 惡症狀도解消해서 全快의日이 각가워지는것입니다

그러나 結核患者는 어쩐지胃腸이弱하므로 어려한분이함부로 多食療法을實行한다고하면 벌란간胃腸을害치고 病狀을惡化시켜 버리고마는故로 어려한方法은 胃腸과相應하면서 이방法을 實行해야됩니다 거기에는 胃腸을强化하는것과 胃腸機能의 亢進에注意해야될것입니다 「錠劑わかもと」는活性酵素ー黴菌 아스페르기르스菌을 主劑로하고 此等主劑은 衰弱한胃腸機能에 賦活作用을주므로 本劑를服用하면 胃腸의氣分이 대단히조아지고食慾도旺盛해지므로速히의多食療法도容易히 實行할수가잇습니다 또

비타민B·D

와 營養價인 良質의蛋白質 구리고ー겐、카제인、레지친、호르몬 等物質等의 重要榮養素도 含有해잇스므로 榮養을促進하는것은 평상합니다 이胃腸機能促進、榮養增進의 兩作用을가진「錠劑わかもと」야말로 結核患者더욱 多食療法을 實行하려는분에게는不可缺할常備藥이라고 하지안흐면 안됩니다

初秋에 만흔 肋膜炎의 療法

肋膜炎患者는 初秋에相當히만허집니다 이것은酷暑時의 登山 海水浴等과 體力에無理를 하엿던지或은休暇中의 不攝生等이原因하야發病하고 或은그無理가더처서가을이되면發病하는이가 만흔까닭입니다

肺病

은무서운病、肋膜炎은그러치도 안타고 생각하는분이 지금도相當히만흔모양이오나 肋膜炎은그實 結核의 前驅症이라고도할만한 것으로서 어떤專門家는肋膜炎의 거이 全部는 結核性이라고 까지하고 잇고 그러케 까지는안이라고 할지라도 肋膜炎患者의 三分의一은 이미一定한結核性病竈를 가지고잇고 肋膜炎을全治해도二年乃至四年間에는 結核이 되는사람이만타고하는統計를 大阪醫大에서는 發表하고잇습니다

療法

肋膜炎의 療法으로서는 乾性이던 濕性이던肺結核의療法과 거이마찬가지로 對症療法에對해서는 多少의相違는잇지마는 主要療法은共通하고잇습니다 그것은 安靜、新鮮한空氣、榮養、局部의保溫입니다 發病初期에는 溶을때러는室內에 絶對安靜을 愼重히지키면 恢復을速하게하고肺結核、腹膜炎의 發病을防止할수도잇습니다

更히榮養에 注意하는것은勿論으로서 恒常胃腸에注意하면서 多食榮養療法을해야될것입니다 胃腸이弱한분은 速히 그强化法을 講究할것은 勿論입니다

「錠劑わかもと」는肋膜炎患者에 업서서는 안될常備藥으로서 本劑의 服用에 依하야 高熱或은

微熱

때문에 弱해잇는胃腸機能을振起하고 衰弱한細胞에도 賦活作用을주는 結果肋膜炎의 經過를 極히順調롭게합니다 이것은本劑中의헤ー케菌이 細胞原形質賦活作用에 强力히 作用하는까닭이며 蛋白質、多種의酵素비타민、아미노酸等의榮養素는 榮養을急進하고 리파ー제、카리고ー겐等의喰菌解毒의綜合作用도잇스므로 肋膜炎의經過를短縮하고 順調롭게療養期間을 短縮하는것입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市芝公園、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廿五日分一圓六十錢、八十三日分五圓이라는 一日數錢에不過한廉價로頒布하고 全國의藥店에서도 取次하고잇습니다

擴大된農產品共販 運用圓滑을企圖

大部分은指定商人買受制로 平南道서協議會(七八日에)

【平壤支社發】평안남도에서는주요농산물의 판매통제를 확대강화방침으로 금년에도 새로대두(大豆)잡두(雜豆)수수(蜀黍)감저(甘藷)등 네가지의 전작(田作)물에 공동판매제를 실시하엿다。

이로서 다음과가티 주요농산물 대부분뿐아니라 농촌부업의 수요산품도 대개가 공동판매에 의하게되여 잇는바 평남공판의 특징은 거이전부 지정매수인을 정하여 그지정상인만이 공판물을 살수잇게한것이다 (괄호내는 지정매수인)

正租(指定精米業者)小麥(三井物產日本製粉)大豆(未定)雜豆(未定)玉蜀黍(日本穀產)甘藷(大平燒酒)蜀黍(同上)落花生(平南落花生受商組合)綿花(三[illegible]三人)繭(平南產繭組合ㆍ創立中)蠶繭、繭物(產業組合ㆍ特約販賣組合)

그외공양농산물은 채소조합의 배재하는 도외전사를 통하여 특수상인의 손을거치여 판매되고 잇음은 주지의사실이다

이와가티 공판제에의하여 판매를 통제하는것은 도당국의설명에의하면 『금일과가티 농산물의대부분이 상품화한 현상에잇서서는 그매매의 양불량은 농촌경제、농업발달에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매매에 서틀고 시가에어두운 농민으로하여금 중간상인의 중간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가격으로 안심한매매를할수잇게하기위함』이고 또지정상인을 정하는것은 『공판제를실시하여도 일반경쟁매매에 맛겨두면 시가가올라갈지세가 보힐때에는 어느상인이나 아울다투어 매수하나 시가가하락할경우가 보히면 모두매입을 거부하여매매불능케되므로 지정상인을정하여 공정가격에의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하게하려함』이고 수지(收支)라고한다

공판운용의 실제요령은 낙화생의일례를들면 주목되는점은 가격산정에잇서서 판매현지로부터 매수인의 거주지까지의 반출제비용 하조비(荷造費)제잡비 급일선수수료를 공제(控除)한가격으로서 일선가격으로하여 생산자에게 지불하게된것과 등급사정은 군농회직원이 결정하게된점 매수인이 독점이라는점등으로 만일 한보를 그르치면그 [illegible] 불합리하고도 공정한운용이 잇기를 생산자들은 기대하고잇다 그러하여 도당국에서는 그 [illegible] 수지의 정치와 순회 [illegible] 하고 이문제에대한 협의를 하기위하여 칠팔량일 도회의실에서 각 군서무과장과 관계당사자(關係當事者)를 회합하고 타합을 하기로되엿다고한다

高城面의出生率 死亡率의二倍半

【高城】인구의 증감여하가 그 민족과국가의장래를 좌우한다는 것은 [illegible] 근래에 고성면의 출생사망자수를 조사하여본바에 의하면 [illegible]

故洪聖淵氏의 記念碑除幕式 六日盛大히擧行

【咸興支社發】[illegible]

南長老宣敎會脫退 全南老會도承認

이로써完全離脫態勢

【木浦】신사불참배를 고집해온 남장로선교회에서는 결국다음과가튼 결의안을 전남노회(全南老會)(光州、木浦지역)에 제출하엿다

一、노회회원권과 교회지리권을 포기함

二、그러나 노회와교회가 지원하면 설교、교인심방、전도등 사업을 협조함

三、선교상보조금(주로전도인봉급)은 명년삼월말로 종료키로함

이상과가튼 제출을받은 전남노회는 지난 사일에 임시총회를 부내양동(陽洞)예배당에서 소집하고 선교사、목사등 사십여명이 출석하야 오전십시부터 개회되여 [illegible] 자유로 [illegible] 한은 여기되엿다한다

水災民救濟碑 除幕式을擧行

【新興】[illegible]

指定商人制緩和?

信川郡農會南浦에通告

【鎭南浦】기보=남포곡물상조합이 [illegible] 각지에서 실시하고잇는 정조공동판매제와 아울러 곡물 [illegible] 황해도신천(信川)지방에서는 불합리한 지정상인(指定商人)제도를 실시하고 이시진남포곡물상조합 자들이 벼사러갓다가 구타까지 당하고왓스므로 진남포곡물관계 [illegible] 기보한바이어니와 [illegible] 적절하다고 찬성이 만타한다

慶南道內邑面長 滿洲各地視察

【慶南支社發】경남도에서는 도내읍면장십이명을 선발하야 만주국을 시찰하게되엿는데 금번 처지험으로 오는십이일오후 팔시차로 장(張)도속의인솔하에 떠나게되엿는바 시사일간의 예정으로서 시찰지는 여순、길림、신경、하얼빈、봉천、영구、여순、대련등이라한다

慶南旱害地免稅額 七萬一千三百圓

附加稅減收도五萬餘圓

【慶南支社發】경남도내한해지의 지세면제에 대하야는 그동안세무당국에서 예의 조사중이던바 그총액이 칠만일천삼백오원으로서 각군별은 다음과가티다

▲晋州郡 二、四六〇圓
▲宜寧郡 四、九〇二圓
▲咸安郡 一〇、九一七圓
▲昌寧郡 一三、八五四圓
▲密陽郡 一六、五〇九圓
▲金海郡 五、七二三圓
▲昌原郡 九、三四九圓
▲泗川郡 六、二四二圓
▲陜川郡 一、三四九圓
▲合 計 七一、三〇五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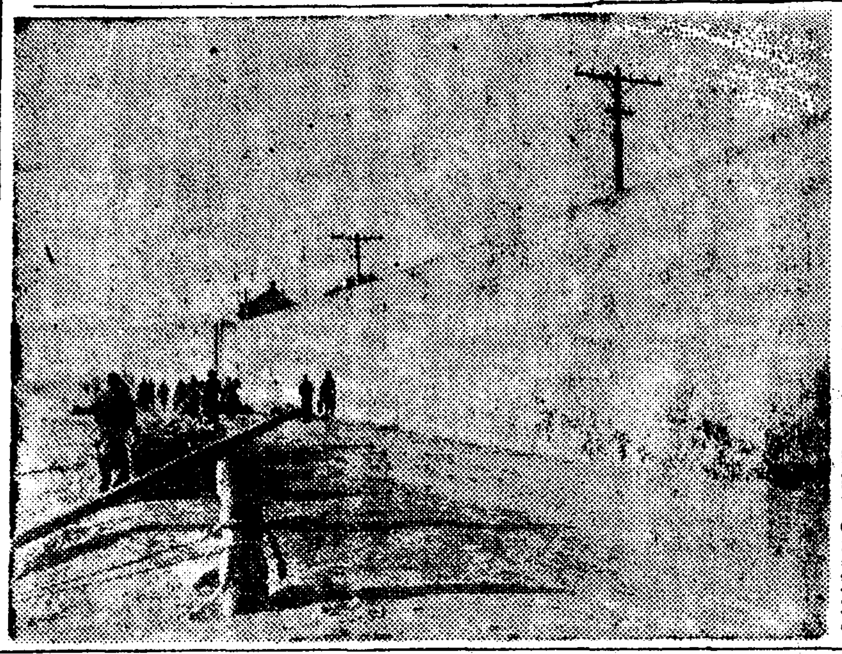
그러고 이상의 지세면세에따라 이에대한 부가세의 감수가 오만여원이며 호별세의 면세에 대하여는 목하조사중이라고한다

貨物列車와衝突 老人一名轢死

【慶南支社發】지난사일 오후네시사십분에 부산진역 [illegible] 에서 부내범일정(凡一町)일천이백[illegible]번지 윤명선(尹明善)의아버지윤화수(尹華守)(六〇)가 북행오십일호 화물열차와 충돌되여 즉사하엿스므로 부산서에서는 시체를 검시하엿다

安東縣防水堤竣工

二百萬圓工費로三個年만에 來廿五日竣工式擧行



【安東縣】매년 여름장마기가되면 압록강 홍수가범람되여 피해가수만원을 초과하는 안동현부근의 안동신시가에 잇스므로 [illegible] 그대로방임 할수업다하여 삼년전부터 공비이백만원으로 압록강의 안전대에 방수제방을 축조중이던바 거번에 공사가전부 완성되엿스므로 안동토목과에서는 신축중에잇는 신공회장에서 준공식을 거행하기로 하다가 [illegible] 오는이십오일에 성대히 준공식을 거행하리라는데 제방은 삼천구백미터로 콩크리트로 축조되여 영원히 홍수의 피해를 밧지안케되엿다고한다 (사진은완성된방수제방)

004067

公設運動場擴張基地 五千圓어치喜捨

江華崔雄燮氏美擧

【江華】강화공설운동장설치운동은 소화십일년이래로 각방면의 다대한원조와 후지의 절대한 성원으로 제일차계획이완정되여 지난달에 개장식까지 성대히 거행하엿다함은 당시 보도한바이어니와 강화교풍회와강화번영회(江華繁榮會)에서는 다시 제이차계획안을 세우고 확장에매진하고잇든바 이소식을들은 강화인사로 경성에서 사업을하는 청년사업가인 조선농구주식회사(朝鮮農具株式會社)사장최웅섭(崔雄燮)(三一)씨는 진시청하야왓스므로 책임당국자의 감사는 말할것도업고 이소식을드른 일반의감격도 적지안흔바 씨는 과거에도 강화중앙교와 강화면이며 기타여러곳에 막대한기부를한 독지가로 이름이 놉다한다 이리하야 제이차 강화공설운동장 확충공사는 지난오일부터 시작하게되엿다는바 금년겨울안으로 완성되리라한다 (사진은 최씨)

照明彈

○이천[illegible]단면 역리 진영열의처 한월(韓月)은 겨우십팔세난 처녀로 [illegible] 논데。

○그남편이무서워서 시가에서자기를미워하는 편보가에 보내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대번이나바화 조선사회에서만보는 이런 비극。(伊川)

咸興大火

安尙哲醫院全燒 損害七千圓豫想

【咸南支社發】함흥에대화—오일 오후네시오십분경 부내황금정일정목(黃金町一丁目)안상철(安尙哲)의원 내실(內室)로부터 불이일어나서 삽시간에 본가일동(一棟)을 모두태웟다고한다 다섯시 이십분경 소방조의활약으로 연소는 면하고 겨우꺼젓는데 손해는 의료기구 가장즙기등약 칠천원가량 예상되며 원인은 부엌의 간수부주의로인한것인듯하다

農繁期父兄爲해 襄陽東小校休業

【襄陽】양양 동소학교에서는 농번기를 이용하야 지난사일부터 [illegible]

大邱醫專移管問題再燃

文部省視學來邱로

【慶北支社發】도립대구의학전문학교(大邱醫學專門學校)의 관립이관(官立移管)문제는 수삼년전부터일어난 문제로서 그동안수차학생대회를 여러왓스며 관민각방면에서 맹운동을 하엿스나 [illegible] 다시중문제는 활발한진전을 보이고 잇다고한다 지난사일오후 동교에서는 [illegible] 임시학생대회(臨時學生大會)를열고 [illegible] 일에내구한 [illegible] 박사는 산본(山本)교장의안내로 동교의시설 내용을 시찰 [illegible] 경북도민의 요망에 [illegible] 의견은 매우양호하다고한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社를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忠南支社 位置 大田邑 設置 昭和十三年十一月一日 支社長 任忠彬

朝鮮日報社白

大田支局 支局長 申[illegible] 右新任 朝鮮日報社白

豐川支局 支局長 盧鎭世 支局長 金[illegible]明 右新任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淸安支局 位置 忠北淸安驛前 設置 昭和十三年十月一日 支局長 林光克

豐基支局 位置 榮州郡豐基市 設置 昭和十三年七月二十七日 支局長 宋大鉉 右新任

謹告

大平分局 記者 咸國楨 右新任 大平分局白

咸北支社 記者 尹[illegible]龍 右新任 昭和十三年十月二十四日付 咸北支社白

兼二浦支局 記者 李正日 右新任 兼二浦支局白

寧越支局 記者 徐丙翊 右新任 寧越支局白

佳木斯支局 總務兼記者 盧中山 右新任 佳木斯支局白

新谷分局 位置 羅州郡公山面新谷里 分局長 金光[illegible] 分局長 李相轄 右新任 榮山浦支局白

汪淸支局 顧問 金[illegible]吉 記者 李光祿 [illegible] 姜[illegible]吉 右新任 汪淸支局白

高城支局 記者 金宗熙 右新任 高城支局白

阿吾地分局 分局長 金才淳 分局長 吳順慶 右新任 朝鮮日報社雄基支局白

四街里分局 位置 湖南線四街里驛前 分局長 金基柱 右新任 朝鮮日報社長城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販賣所를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榮山浦支局白

潤江販賣所 位置 羅州郡潤江面月良里 販賣所主任 姜[illegible]相 右新任

うそインチキ絶對排擊!!

やがて來る大陸開拓を前に
半島の山野を殘らず拓きませう
天然資源の開發愛護へ
燃ゆる愛國の熱情を捧げませう
これからいよいよ本格的に
土地はグングン芽を出して來る
貨殖と健康の二筋道へ
國民擧つて進みませう!!

愛國が[illegible]土地營行大分讓

◎夏涼しく冬溫暖……水質良く水量豊富……道路完備
總坪數十萬坪……一劃壹千坪內外 (御希望に依り分割致します)

勿驚!!壹坪 金七拾錢より……四圓內外

賣出期間十一月八日より十四日まで (絶對日延無)

(賣出初日は午前七時營業開始)

◎社長大西靜史來城現場にて御挨拶申上げます (尙粗品進呈)

現地說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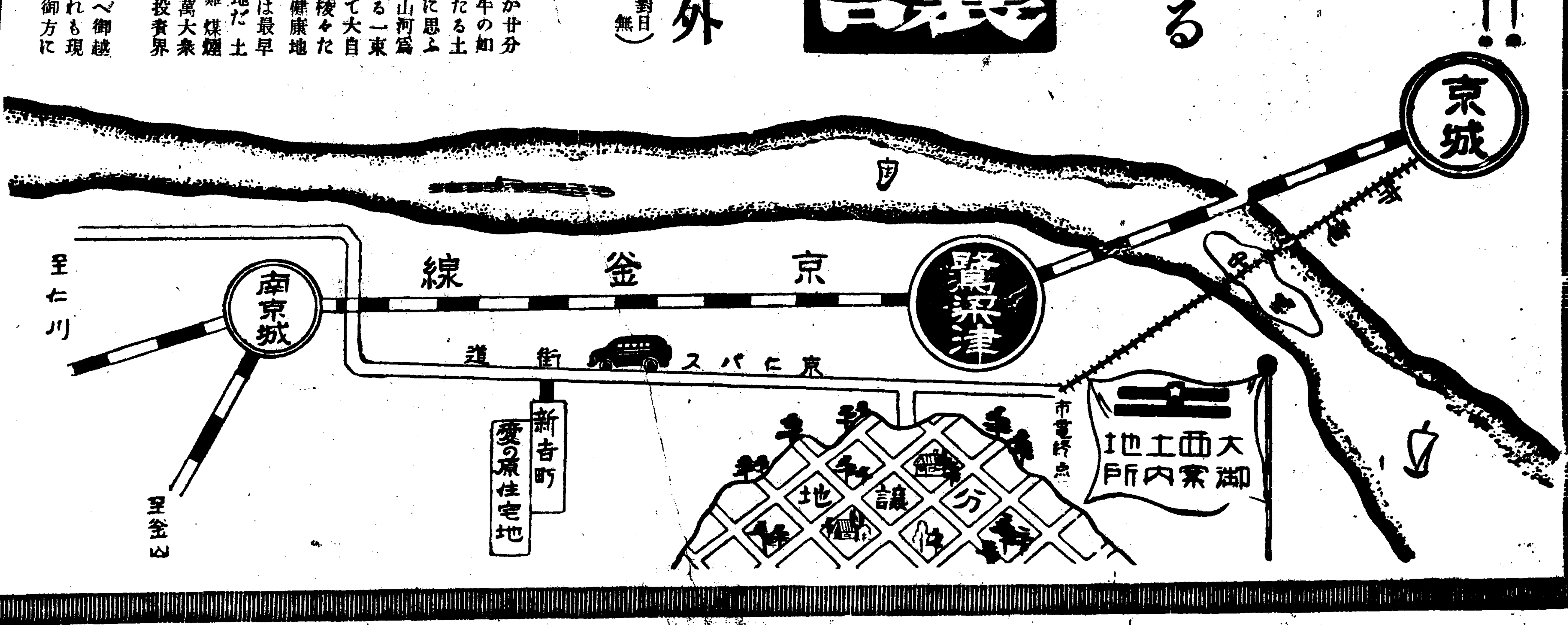
京釜線鷺梁津驛下車、市電鷺梁津終點より徒歩僅か廿分道中松籟の妙音を聞き坦々たる緩傾斜を行けば臥牛の如き小松丘が分讓地、天空一碧纖塵をとどめず馥郁たる土の香を嗅ぎ穏やかな流水の歌を聽き撫でるが如き微風を滿喫し紫外線とオゾンを恣に思ふ存分五體を伸す銃後保健の絶對郷晩秋の大自然は七草の花園と化し氣飽くまで清く山河爲に秀麗清楚夕に松丘の月を眺め曉には浮山の彼方に落る月を送つて無上の歡喜に耽る一東の草花一掴の土にも千古不滅の興趣を湛へ一木の影にも詩情油然と湧く四季を通じて大自然に惠まれた當地の異趣は文人墨客ならずとも感嘆を禁じ得ないだらう冠岳北漢の稜々たる奇峰をパノラマの如く轉觀し鮮都を一眸に收め得る半島只一の風靡篤投資的絶對健康地

現地の効用

一攫千金を夢見た株式投資も非常時統制下に於ては最早妙味は減殺されたり現今投資物中の王座は斷然土地だ土地は未來永劫不滅不壞で絶對安全確實なり 住宅難煤煙喧騷を避けて郊外へ郊外へと年々歲々押出す鯨波の如き人を見よ!! 當地は半島一千萬大衆のホープを集め銃後唯一無双の投資的健康地と滿天下の絶讚を博せり 半島の秘寶投資界の大鐵扉は俄然開放されたり好期逸する事勿れ!!

賣出中の特典

御觀察の方は弊社營業所太平通二丁目(南大門前)へ御越下さるか又は鷺梁津市電終點へ御出で下されば何れも現地迄自動車で無料御案內申上げます 尙御視察の御方には汽車電車賃往復料全額御拂戾致します(御買上の御方には自動車寄贈致します)



御契約方法

御契約と同時に手附金として三割、更に一週間以內に三割、殘金は登記と同時に頂戴致します。尙下記口座を御利用下さい。

取引銀行

京城府 朝鮮殖產銀行
〃 安田銀行京城支店
福岡市 三井銀行福岡支店
〃 安田銀行福岡支店
〃 住友銀行福岡支店
東京市 第一銀行本鄉支店
〃 第百銀行本鄉支店
〃 安田銀行本鄉支店
名古屋市 三井銀行名古屋支店
〃 名古屋銀行新榮町支店
〃 安田銀行名古屋支店
〃 第一銀行名古屋支店
大阪市 安田銀行堂島支店
廣島市 第一銀行廣島支店
〃 第百銀行廣島支店
〃 安田銀行廣島支店
〃 藝備銀行銀山支店

大西拓殖株式會社

京城營業所 京城府太平通二丁目(南大門前) 電話本局(2)三二九三、四〇六〇番

博多營業所 福岡市下小山町三〇番地 電話本三八七八、五三七九番

東京營業所 東京市本鄉區本鄉三丁目二番地 電話小石川一二九、三一九〇 五一九〇、六五九二番

名古屋營業所 名古屋市東區東新町一六番地 電話本七五二一、七一九〇番

廣島營業所 廣島市山口町一〇番地 電話廣島八〇三五、八二二六番

仙臺、臺灣營業所 (開設準備中)

新情勢와 經濟展望 ⑥

輸出貿易振興과 爲替水準堅持

絶對必要한兩大課題

金光濬

戰時下의 貿易政策은 戰爭의 終局的勝利의 獲得이라는 大目的에 統一된 全戰時經濟政策의 一環을 形成하고잇는 것인데 漢口陷落에依한 新事態展開에 追隨하야 貿易振興問題도 我國經濟의 中樞的課題의 하나로서 益益重大性을 띄게되엿다. 我國은 資源이貧弱하므로 特히 戰時에는 軍需資材의 輸入이 品種, 數量에잇서서 厖大하고 多額에 達하지안흘수업는 狀態인데 一方爲替方面에서오는 制限은 「인풀레」의 脅威에 對備하기爲하야는 過度의輸入에依한 國際收支의 赤字를 阻止하여야하겟다. 即爲替市勢를維持하면서 一方 軍需資材의 圓滿한輸入을 圖謀하여야한다는 一見矛盾된 兩課題를 遂行하여야할것인데 漢口陷落에依하야 戰局의規模, 性質이 달라질것이나 戰爭가 持續될것에는 變함이업고 그뿐아니라 大陸의長期建設에는 莫大한諸資材가 必要할것이니 海外輸入의 必要는 漸加되기는할지나 減少되기는바라지못할것이다. 그런데 輸入力을確保하는 길은 輸出을旺盛히할수밧게업슬것이다. 特히現下國際情勢로보아 크레딧트設立이 거의難望인狀態에잇서서는 輸出振興이 輸入力確保의 唯一의 方途라 할수 잇겟는데 元來戰爭은 其物資消費的性格에依하야 海外輸出分까지 蠶食하고 또海運關係等도 障害에 遭遇되는 關係로 海外受取勘定을 減退시키는 傾向을 가지고잇스므로 特히長期戰下의 今日에잇서서는 무엇보다 戰爭을 遂行하기爲하야 一層輸出을 增進시킬必要가 加重되는것이다

×

爲先十月下旬까지의 今年度貿易의 實績을보면 輸出累計 二十二億九千百餘萬圓 輸入累計二十二億九千九百餘萬圓, 入超八千萬餘圓으로 入超는 前年에 比하야 六億八千萬圓의 激減으로되어 數字的으로보면 顯著한 改善을 보이고잇스나 …

麥類實收大減收

總收穫高千百七十六萬百八石

比前年一割九分九厘減

昭和十三年麥類實收高調査에依하면 昨秋南朝鮮地方에서播種期에 降雨가繼續되고 播種이遲延되야 顯著히 減收力을 減하얏슴과 本春의伸長期에 至하야 全朝鮮을通하야 旱害를 蒙하얏슴으로 總收穫高는 前年의 豐作에 對하야서는 二百九十一萬九千九百九十三石(一割九分九厘)의 減收를招來하얏다

即作付反別은 大麥八十四萬八百五十六町四反步 小麥三十四萬五千九百八十四町九反步 裸麥二十七萬五千九十八町六反步 라이麥一萬四千二百四十町八反步 合計百四十七萬六千九十一町七反步로서 前年에 比하야 二萬五千五百八十二町四反步(一分八厘)의 增加이나 收穫高는 大麥七百四十一萬七千二百七十八石, 小麥二百六萬二千四百八十八石, 裸麥二百二十萬四千七百四十九石, 라이麥七萬五千五百九十石, 合計千百七十六萬百八石으로서 前年實收에 比하면 大麥二百三十七萬八千五十二石(二割四分三厘)의 減, 小麥三萬一千六百十三石(一分六厘)의 增, 裸麥五十六萬七千二百二十九石(二割五厘)의 減, 라이麥六千四百二十五石(七分八厘)의 減, 合計二百九十一萬九千九百九十三石(一割九分九厘)의 減收이엇다

麥作付反別及收穫高累年對照表

(一) 作付反別

區別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對昭和十二年比較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上比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收穫高

區別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對昭和十二年比較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上比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麥地方別表

(一) 作付反別

道名	計	同上前年增減(△)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二) 收穫高

道名	計(石)	同上前年增減(△)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新米出廻激增으로 南鮮正米大瓦落

賣惜는産地態度軟化

高價를 豫想하고 賣惜든 奧地는 政府의 高米價抑壓方針에伴하야 그態度가 軟化되고 비로소 出廻를 演하기始作하엿다 休日을지난 今七日의 各地正米市場狀況을보면 南鮮에서는 出廻激增 賣物山積이나 買方은 더떠러지기를 기다리고 內地入注도 시원치안어 淸算低와 아울러 崩落을 演하얏다 即群山五十錢 木浦는 三〇 四十錢 釜山三十錢이 떠러젓다

短資市場 緩慢狀態

公森鮮銀副總裁談

公森鮮銀副總裁는 六日入京하엿는데 內地金融界는 政府支拂增加其他에依하야 資金은 자못潤澤하고 社債도最近은 二流債가順調로發行되고잇다 金利는 四分四厘와一程度에 基準을 두고잇는데 …

短資市場도 자못緩慢하야 銀行은 모두 返資가만코 一方農村도 資金이 潤澤하므로 信用組合等도 資金은 大端히 豐潤한모양이다

地方金利의 水準化問題는 日銀의 方針에 府縣이 協力하야 漸次金利의 調整을보고 잇는데 要컨대 各府縣의 努力如何이다 內地에서도 信用組合의 어에對한態度가 問題로 되어잇는데 內地의 信用組合은 現在日步七厘內外로 預金이 增加되고잇는터이니까 金利調整에 充分協力할수잇는立場에 잇다할수잇겟다

○義州鑛山總會=義州鑛山에서는 來三十日三菱支店內 本社에서 下期決算總會를 開催하는데 配當은 一割四分据置(配當一割特配四分)이라고

朝鮮人議員 常議員運動

副會頭問題도波瀾?

興味잇는商議役員選擧

京城商議의 會頭副會頭常議員의 選擧는 八日午後四時부터 第一回議員總會에서 하게로되엇는데 會頭賀田直治氏 內地人副會頭田川常治郎氏의 選任은不動이나 朝鮮人側副會頭에 對하야는 李東善 朴永根兩氏가 對立하야 競爭하고잇서 結局決戰投票에依하야 雌雄을決하게될것이다 또 常議員六名은 從來內地人側이獨占하고잇섯는데 對하야 今回는 朝鮮人側에서 적어도 二名의進出을 猛運動하고잇스므로 相當한 波瀾이생길것으로 豫想되어 八日의 議員總會는 注目되고잇다한다

慰問煙草引繼

目下全朝鮮 …

漢江水力電氣 創立發起人會

漢江水電의創立은 有賀發起人代表를 中心으로 協議中이든바 七日午前十一時부터 朝鮮信託에서 創立發起人會를 開催하얏다 發起人會에서는

一、定款案의審議
一、株式의配定
一、創立總會의時期

를附議하얏는데 創立總會는年內에開催할計畫이라한다

林殖銀頭取 湖南地方出張

殖産銀行頭取 林繁藏氏는 田秘書役을 帶同하고 八日午後十時五十分發 湖南地方의 金融事情을 視察하기로 되엿는데 光州、全州、淸州等을 視察하고 十三日歸任의 豫定이라고

金利調整

財務局最後協議

金利調整에 關한銀行側의 答申에接한 總督府財務局에서는 其後該答申에 對하야 愼重研究를 거듭하고잇든바 近近全金融機關代表者를 總督府에 招致하야 懇談會를 開催하고 銀行側의 答申及財務局案을 基礎로 金利問題에關한 最後의 協議를하기로 하엿다

棉花、麻、팔푸等 栽培奬勵助成

『朝鮮纖維協會』認可

基金六十萬圓으로設立

財團法人朝鮮纖維協會는 基本金六十萬圓으로써 設立하기로되어 이에準備中이던바 一切手續을完了하고 十月三十日附로써 總督府의認可가잇서 드듸어創立을보게되엿다 事務所를 總督府農林局內에置하고 近近理事會를召集하야 本年度豫算其他에對하야 協議하기로決定하엿다 그리하야 協會는 內地棉花輸入統制組合으로부터 三十萬圓 朝鮮紡績同業會로부터 二十萬圓 合計六十萬圓을 總督府에서 寄附를受하야 此基金으로써 棉花의栽培奬勵試驗研究所를비롯하야 麻, 팔푸等栽培研究助成事業을 行하기로되엿스며 纖維界에貢獻되는바 甚大하리라하야 期待되어엿다

事變公債好評

配定額超過

지난五日에 끗마튼 第六回支那事變國債의 賣行은 자못好評을博하야 配定總額六十萬圓에對하야 八十四萬五千圓을 賣捌하고 十四割八厘의 好績을보이엇다

朝窒系人造石油

近間市販開始

朝窒系의 朝鮮石炭工業灰岩工場의 人造石油事業은 今春의成功以來 順調히 操業을繼續中으로 그製品의 在荷量도 相當數量에達하엿스므로 本年度下期부터 市販을開始하기로하고 先般來總督府의 安田燃料課長、星子技師가 渡東하야 商工省과 右에關한 配定의協議를 終了하엿다 大體右의販賣는 內鮮兩地에 亘하야 開始될意向이라 最初의 人造油의 市販開始이니만큼 注目되고잇다한다

今日의市勢(七日)

株式 人氣萎縮 漸崩

前場奔落

國內國外를通한 諸惡材의 輸湊로 落潮는 不熄이여서 東新一圓二低인 一四四圓九 鐘紡四高인 一五八圓丁에寄付後 東新은 三、四圓間을 出入하다가 低價에는 押目買가잇서 結局 東新四圓二、鐘紡七圓丁에 大引

後場續軟

後場은 押目買로 東新八高인 一四五圓丁 鐘紡一圓高인 一五八圓丁에 寄付後 又復落潮에 들어 低迷裡大引

東新落潮尤甚

重大聲明의 發表以來로 落勢에든 市勢는 休日을지난 今朝에도 依然 東新을中心으로 落潮不熄이어서 東新은一四三圓五의 低價를 示現하엿는데 總動員法도 意外로 急速한 全面的發動을 보게되리라 하며 增稅額은 아직 未定이나 只今까지 好況을 呈하여온 時局産業의 超過利潤에 對하야 增稅의 方向이 움지기게 된다하면 …

國際關係憂慮

米國의國務長官의 九個國條約遵守聲明과 前後하야오는 英佛會談에 잇서서도 極東問題에對한 對策이 討議되려하야 …

國債少堅裡閑散

【東京電話同盟】高率債의 實物은 겨우一服狀態이고 環境觀望裏에 傍觀되어 閑散이나마 大概小堅商狀을 呈하야 …

期米 政策壓迫 暴落

前場反落

一休今朝阪地初付二十六圓〇九錢인 八丁反落을 接하고 當三圓七十錢인 五丁低 中三圓二十九錢인 四丁低 先限은 三十三圓四十三錢인 五丁低로 …

後場續落

後場은 三十三圓二十四錢인 六丁低로 始場後 二節一九錢 三節一五錢 五節一一錢으로 續落되엇다

買氣俄然一挫

去九月初旬에 三十一圓七十九錢에 發會된 十一月限은 先限時代에 三十一圓六十二錢의 最低價를 示한後 因而騰途에入하야 一昨日 三十三圓七十五錢의 最高價를 示하고 …

當限戰의今後

瓦落은期待難

政府가高米價에는 買上을하지 안는다는 發表가 잇슴에 따라, 期近兩界는 그餘響을 受하야 騰勢가 一挫된觀이 업지아니하다 …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仁川在米減少

十一月六日現在 仁川在庫米는 … 前週에比하야 …

正米 出廻激增 崩落

京城同調

南朝鮮地方에서 새벽부터 新米出廻市場을示現하엿스나 當地는 依然한出廻減으로 …

仁川不變

釜山暴落

大邱保合

木浦崩落

群山續落

市場公感

[illegible]

今日財界七日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京城物價七日

[illegible]

益康 仁川 京城 金益證券

總督府許可 金買銀 金銀賣買會社 京城南大門通

株式 期米 玉 仁川米豆取引所 マルマ取引店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長一六九一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桑野取引所 電話長六三九番